

금주의 기도



인생이 늙어 육신이 쇠약지라도 영은 더욱
맑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밝히 알아 자
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
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하나님아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
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
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3월 16일 (토) 제 1722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은퇴 후 삶에 새 패러다임 제시한다!

CT, 커버스토리(Saving Retirement)로 의미 있는 삶 실제 사례들 소개

팻 풀은 3월 말에 헬리버턴의 영업 관리직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한 후,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수너스 풋볼 팬이며 골프광인 풀은 휴스턴 소재의 이 세계적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관두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겠거니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TV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심각하게 물었다. "뭘 하지?"

세계는 엄청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에서만 70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20년 안에 은퇴하게 될 것이다. 또 2035년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은퇴 연령 인구가 18세 미만 인구를 넘어설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2050년 유럽 60세 이상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해 2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은퇴에 관한 현대의 문화적 인식에 불만을 나타낸다. 그들은 돈과 일과 시간과 가족과 여가와 삶의 목표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고, MIT의

에이지랩(AgeLab)소장 조셉 콜린은 "내셔널저널"에서 말했다. "백세 인생(100-Year Life: Living and Working in an Age of Longevity)"의 저자 린다 그레튼과 앤드류 스콧은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으며, 평균 은퇴 나이에서 20-30년은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퇴자들은 다들 은퇴 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은퇴 후 사용될 자산이나 경비가 부족해 잠시 은퇴를 유보하고 일에만 전념 해야 하는 베이비붐세대도 있다.

크리스천 커뮤니티투데이는 커버스토리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퇴 후에 걸어가는 길들을 "은퇴를 구원하라(Saving Retirement: Growing old is not what it used to be. For millions of retirees, that may actually be good news)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은퇴 후 마냥 쉬기만 하는 것도, 마냥 일만 하는 것도 모두 피한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노인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은퇴 후에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휴가에서 안식시간으로

"린다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적이 있는 휴식을 갖기로 했지요." 베리 로완은 말한다. 2006년 로완은 무선전화 회사 넥스텔 파트너즈의 CFO 였다. 수년 간 압박감이 큰 직책을 맡아 온 그는 완전히 은퇴해 모든 일을 중단하기보다는 안식시간(sabbatical)을 갖기로 결심했다.

'휴가(vacation)'란 단어는 라틴어 '바카레(vacare)'에서 파생된 것으로 '떠나다, 비우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멕시코 해안이나 플로리다 산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기회로 여긴다. 그러나 로완은 말한다, "저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순종의 의미와, 내 자신을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다 깊이 체험하기 위해 안식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기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의지적으로 3개월이



나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안식일을 갖게 하는 사회적 구조로 은퇴를 보고 있다(레위기 25장 참조). 따라서 소비와 여행, 아니면 새로운 영역으로 무작정 뛰어 들기보다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축하하고, 배우고, 단순해지고, 기억하고, 섬기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브레드포드 휴잇은 2018년 11월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금융서비스 회사인 쓰리엔트 파이낸셜(루터교 계열)의 경영에서 물러났다.

<3면으로 계속>

페이스북 사용 한달 휴업 행복감 오히려 상승!

뉴스위크, 스탠퍼드/뉴욕대학 공동 연구인용 보도

스탠퍼드대학과 뉴욕대학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한 달 동안 중단한 이용자의 웰빙(행복감)이 높아졌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 이용을 자제했더니 행복감이 향상됐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많았다. 페이스북 이용을 중단한 사람은 뉴스를 읽거나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SHOULD YOU DELETE FACEBOOK PERMANENTLY? QUITTING FOR A MONTH MAKES USERS HAPPIER: STUDY).



연구팀은 페이스북에서 매일 한 시간씩 활동한다고 답한 2844명을 조사했다. 웰빙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메타 분석(연구의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에 따르면 자기관리 요법, 그룹 트레이닝, 개별 요법 등 심리적 개입의 영향이 약 25-40%였다. 요법을 처치 받은 그룹의 대다수는 SNS 활동 중단이 유익했다고 답했지만 페이스북 이용을 줄이면 그

만큼 많이 생각날 것이라고 보는 비율도 높았다. 조사에선 4주 동안 페이스북을 끊으면 주관적인 웰빙이 향상되고 실험 후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줄었다. 이는 중독과 투사편향(projection bias, 현재의 취향이 미래까지 계속되리라는 가정) 같은 변수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면으로 계속>



발행인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강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HOPE NEWS MISSION

창립 36주년 기념

제9회 선교대회

"어제는 이웃, 오늘은 세계로!"

2019년 3월 22일(금)~3월 25일(월)

브라질, 캄보디아, 과테말라, 미국, 카자흐스탄, 라오스, 멕시코, 네팔, 우크라이나, 동티모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샌디에고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San Diego

www.sdhope.org / 4665 Mercury st. SD CA 92111 / 문의: 858 292 0999 이창후 목사와 교우일동

발행인 칼럼

문제 뒤집기



김성국 목사 (린즈장로교회 담임)

백 십여 년의 역사가 있는 미주한인 이민교회는 한 때 계속하여 수적으로 커져나갔었다. 이 성장을 일군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운 환경들이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첫 한인 이민자는 1903년 하와이에 정착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도 이민자들의 발길이 계속 닿기 시작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디에서도 그 아픔을 나눌 수 없었다. 그러나 교회가 있었다. 교회에 모여 서로 문제와 힘든 점들을 나누었다. 교회는 서로 보듬는 장소요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곳이라 인식하면서 그 수는 점점 많아졌다.

문화충격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 때문에 이민자들에게는 문화충격이 컸었다. 그들의 문화를 누리고 언어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고국의 문화와 언어를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그 피난처였다. 그 피난처로 삼사오모 모여들었다. 자녀교육의 문제도 난관이었다. 사실 한인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던 부모들은 좋은 교육과 훈계가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가능한 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

한편으로 이민자들의 가치관의 혼돈은 삶 속에서 가장 울바르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갖게 하였고, 이민자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자각과 함께 영원한 영적 필요성을 붙잡고 싶은 열정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예배는 이민 땅에서 흠뻑 땀의 대가로 손에 쥐게 된 달려만으로 공허해 하던 이민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곤 했다. 한인 사회에 적절한 리더의 부재 또한 교회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이민 땅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에 교회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살펴본 이민교회의 성장에는 역설의 현상이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이민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는 진단이 잇따르는데 지금 또한 역설적 성장을 도모할 때가 아닌가. 5년 6개월 전,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8년 만에 돌아온 이민교회의 상황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이민자와 유학생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교회 주변에 살던 한인들은 학군이나 환경을 고려하면서 멀리 이사 가는 분위기였다. 교회가 한인이 많이 가는 곳으로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더더욱 없었다. 씨름에서 보았던 뒤집기가 필요했다.

한인만이 이민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두가 이민자 아니던가. 이민교회의 대상을 한인만이 아닌 모든 이민자로 생각하니 새로운 길이 열렸다.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뒤집기 관점과 시도(試圖)는 단지 교회의 수적 성장을 떠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문제 뒤집기의 여파(餘波)는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교회에선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 리더들 간의 역기능적 관계가 많았다. 이 역기능적 관계 속에서 한국어권 교역자들은 그들의 힘과 전통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영어권 교역자들은 그들의 문화와 변화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 다민족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하다 보니 자체 갈등은 사치품같이 여겨졌다. 대립이 아니라 상호간에 존중하는 파트너 리더십이 문제 뒤집기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모든 문제를 다 뒤집는다고 되겠는가. 또 뒤집은 것이 다 잘 되겠는가. 하지만 시사각각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해야 하는 이민교회 현장에서 문제 뒤집기는 두고두고 요긴한 방법이다.

소그룹 성장 추진 엔진은 기도!

리더십저널, 헨리 크라우드/존 타운센드 팀이 전하는 성장하는 소그룹 노하우 원칙 소개

교회에선 소그룹 모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소그룹 인도자들도 곳곳에서 세움 받는다. 요즘처럼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임의 필요성이 부각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그룹 인도자로 부름 받은 헌신된 교인들은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다. 자신의 소양이 소그룹 인도자로 적합한지 의문스럽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서는 보람보다 회의가 앞선다. 한 학기를 채 마치기 전에 포기하고픈 바람이 간절해진다. 헌신된 마음만으로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에 역부족임을 절감한다.

열정은 있으나 노하우가 부족한 탓이다. 헌신된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그룹에 관한 신학 서

적이거나 이론서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들과 몸을 부딪쳐가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에서 쉽고 정확히 적용해 갈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센드 박사는 자신들만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소그룹 인도자들이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은 바로 "기도"라고 말해준다. 기도는 소그룹의 가장 강력한 성장도구 중 하나다. 하나님이 뜻하신 기도는 사람들이 그분과 교제해 삶의 반복을 누리며 통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살펴본다.

당신 그룹에 기도의 자리를 정한다

기도의 게임 폭은 그룹에 따라 다르다. 기도 시간을 따로 할당하는 그룹도 있고 시작하거나 끝날 때만 기도하는 그룹도 있고 그때그때 자연스런 기도를 허용하는 그룹도 있다. 그룹 기도나 합심 기도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구도자 중심의 그룹이 그런 경우다.

기도의 자리를 멤버들과 애기한다



을 막는지 통 모르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돌과구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머잖아 그는 남들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는 그룹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결했고, 그 후 그와 멤버들은 다음 방향을 깨닫게 된다.

다른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멤버들로 그룹 밖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기도하게 한다. 예컨대 당신의 교회, 지역사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 정하고 자유롭게 멤버들 사정 놓고 기도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 기대하도록...다른 제목도 기도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정했던 반드시 모두에게 알려 공감대를 이루게 한다. 그룹 기도가 편안한 사람들은 경험미적은 사람들의 고충을 몰라줄 때가 종종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멤버들의 사정을 놓고 그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워주시고 우리도 그분께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혹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개발하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참해 말없이 마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
멤버들이 시간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약한 모습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주님께 할 말을 자유로이 말하게 할 수 있으면 좋다.

멤버들의 사정을 놓고 기도한다

멤버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재난이나 건강문제에만 있다는 생각을 떨치게 해야 한다. 서로의 아픔, 관계, 막힌 곳, 교제, 응답, 성장단계를 놓고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예컨대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아무개 자녀님이 자녀들에게 한계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를 기대하도록 이끌어준다

소그룹 멤버들이 특히 그룹의 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도한 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는 일은 감격스럽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멤버들은 서로 더 가까워진다. 우리 그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기억에 날 것이다. 무엇이 자신의 정서적 모험

도 합심으로 기도하게 한다.

성령의 인도로 기도한다

멤버들로 다른 속셈 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과 그분의 인도에 늘 민감해야 한다.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간에 교제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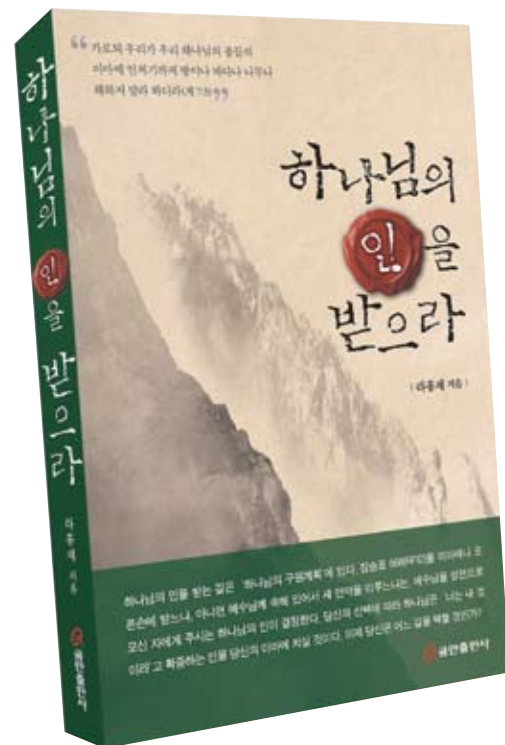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은퇴 후 삶에 새 패러다임 제시한다!

(1면에서 계속)

“25년 동안 최고 경영자 직에서 물러나면서 저는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휴일은 분별력을 얻기 위해 먼저 기도와 독거와 우정의 재구축과 건강식을 위해 6개월의 안식시간을 누리고 있다.

“CEO의 행보는 쉽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이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공에서 내려놓음으로

저술가이며 앨버타 주 캘거리에 있는 엠브로스 대학교 총장인 고든 스미스는 말한다.

“저는 우리 인생의 이 (노년의) 시기에 직업 정체성(vocational identity)의 핵심은 권력과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직책이나 공식적인 어떤 권력구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배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합니다.”

직위나 부에 대한 욕심 없이 나이드는 사람들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다음세대에게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다.

“이 시기의 삶은 마치 플레이 낚시와 같습니다.” 프레드 스미스가 말했다. “고기를 낚더라도 그것을 잡아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쁘게 그것을 풀어줍니다. 저에게 은퇴란 이처럼 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 최고경영자들의 코치인 67세의 에드 웨서 역시 권력을 포기할 때 얻게 되는 더 큰 자유를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60대가 돼 직업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말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그는 말했다.

“노인”에서 연장자로

이제 미국의 새로운 노인 세대는 고품위를 해결해야 할 문제(“안티-에이징 크림”을 예로 들 수 있다)로 보기도 하는 “빛나는 면류관”(잠16:31)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인이라는 명칭은 전혀 모욕이 아니라, 한때는 지혜와 품성과 지도력과 경험과 세월의 열매를 의미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라”고 말한다. 구약에서 연장자-elder(zaqen)라는 단어는 노인의 고귀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됐다. 연장자는 고대의 공개 토론장이었던 성문에서 지혜를 가르쳤다(욥3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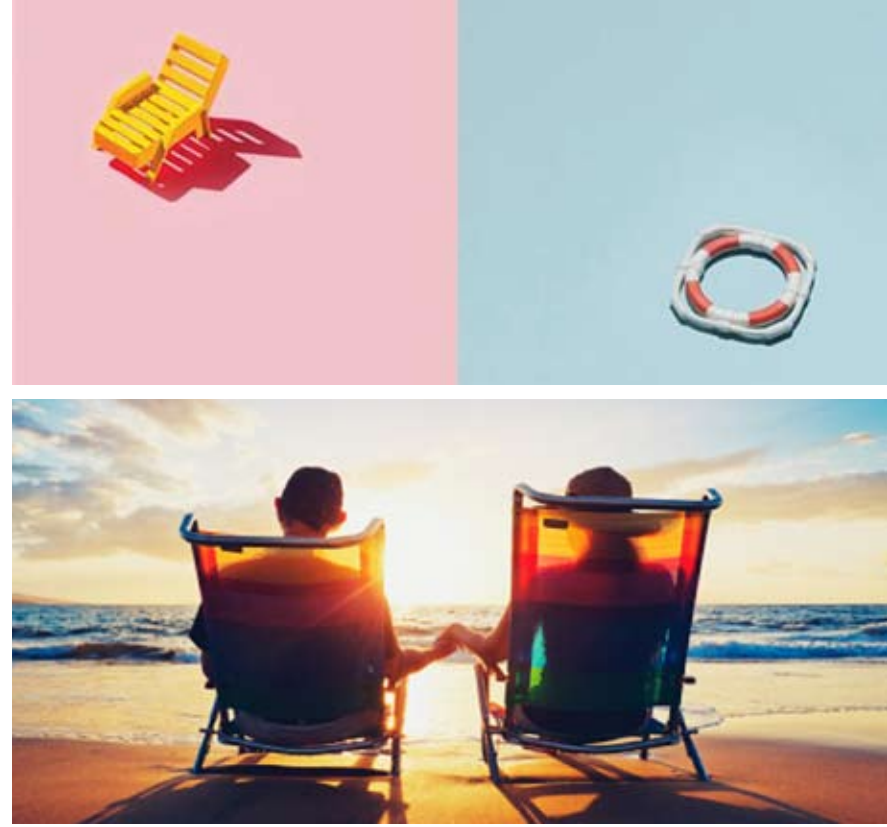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노인에게 최고의 영예는 영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공동체로 물러나기보다는

은퇴를 연장자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 부티크 호텔리어로 장기간 일하고 은퇴한 칩 콘리는 ‘에어비엔비’의 젊은 설립자로부터 그 회사가 숙박업계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디지털 기술 사용법도 잘 몰랐고, 아들뻘 CEO에게 보고를 해야 했지만, 신생기업을 글로벌 성장 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현대적 의미의 어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고, 젊은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낯선 것들을 조화로 승화시켰다. 나이드는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만 멘토링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날로 심화되는 미국에서의 성장 기회 격차에 대해 유려한 필력으로 저술한 하버드대학교 사회학자인 로버트 퍼트넘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종교공동체가 이러한 기회 격차의 부도덕성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멘토링은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독거에서 세대 간 동거로

그렉 게스트는 허드슨 리버 헬스케어 주식회사의 인적자원 담당 부사장이다. 그렉과 그의 아내 낸시는 장녀와 사위, 손자 셋과 함께 집을 같이 사용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1500제곱미터 크기의 집에서 그렉과 낸시는 2층에서, 딸 부부와 손자들은 지하에서 지내고, 1층 거실은 공동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집을 공유하면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게스트는 말한다. 이를테면 통신비를 따로따로 안 내도 되고, 잔디 깎기와 커피포트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주택 대출금을 나눠 함께 상환하는 것 역시 모

두의 가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힘든 점도 있다.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따금 이해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렉은 딸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요.”

세대 간 동거(Intergenerational living)가 늘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게 은퇴한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세대 간 동거를 권장한다.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

56세의 수잔 콜은 20년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녀는 섬유근육통으로 고생을 했다. 오랫동안 고된 일을 한 탓에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이다. “저에게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시론

짐을 서로 지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아는 목사 한 분이 있는데 유럽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도 열심히 했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참 은혜로웠는데 나중에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교회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는지 도박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사모도 모르게...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한번 두 번 갔다가 나중에는 깊게 빠져서 심지어 선교비까지 손을 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가 돈을 다 잃고 거의 폐인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

기지 못하고 자백을 하였다. 당시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교단에 큰 문제가 되기까지 하였다. 다 돌을 던졌다. 선교비도 다 끊어졌다. 본국에서 소환하여 목사직을 정직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분을 지도하여 선교를 보냈던 선교단체의 대표되는 분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목사님은 깨진 꽃병과 같습니다.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진 꽃병이라 해도 아교품로 붙이면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지라도 더 튼튼한 꽃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실의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 목사를 매주 한 번씩 거의 일년간 만나면서 상담해 주었다. 그렇게 만나면서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목사는 더 튼튼한 꽃병이 되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시카고 윌로우크릭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지금은 개인적인 실수로 명성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 교회는 3만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표적인 대형교회다. 하이벨스 목사가 목회할 때 그 교회의 설교를 1/3 정도 감당했던 리 스트로벨 목사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잘 나가는 기자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내의 인도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회심을 하였는데 하이벨스 목사가 그를 목회자로 양육해준 것이다. 갑자기 설교사역을 하니 하이벨스 목사의 생각에 부족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주일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0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그 교회의 출석인원은 만 명이 나 될 때였다.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원고를 수정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무려 2년반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짐이 있고 갈 짐이 있다. 우리는 그 짐을 회피하지 말고 짊어져야 한다. 가정의 가장에게는 식구들을 부양해야 할 짐이 있다. 부인이란면 안살림을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 자녀라는 짐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려운 자신이 짊어질 짐이다. 그런 짐들은 각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짐을 짊어지고 지치고 낙심하여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다윗은 꽤 오랜 기간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지치지 않고 지혜스럽게 처신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까? 성경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대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뭇으로 가서 살았더라”(삼상19:18). 이 말씀으로 비추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당한 일들을 다 사무엘에게 털어놓았고 심지어 일정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상담을 받은 것이다. 다윗은 그런 탁월한 멘토링이 원동력이 되어 유대 광야를 헤매는 그 긴 기간 지치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을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6:2). 내 삶에도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나를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 몇 분이 있었다. 그분들의 탁월한 지도 덕분에 부족하지만 나의 오늘이 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내게 그렇게 대신 짐을 져주는 스피릿도, 능력도 부족한 것을 느낀다. 지금도 내 주변 누군가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텐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에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의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길

아내의 요구로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다. 삶이 팍팍하여 가까운 공원에 가지도 못하고 겨울을 보내고 말았다. 공원에는 이미 봄이 찾아와 있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말이다. 이 거대한 드넓은 터를 2천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는 일이 신

비하기만 하다. 아름다운 공원에는 클라우디아(Claudius41-54AD) 황제가 건축한 웅장한 수로가 있다.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수로가 공원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뻗어 있다. 2천년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수로는 높이가 20m 이상은 될지

하다. 로마 제국에 대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제국 로마는 그 옛날부터 좋은 물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수로 가까운 곳에 30m정도의 길이의 옛 길을 발굴해 놓았다. 길의 시작은 로마 이전의 에투르스족들(주전 7세기)까지 거슬러야 하는 아주 오래된 길이다. 로마의 라티나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191km에 이르는 길이다. 즉 Arterna-Anagni-Ferentino-Frosione-Ceprano-Aquino-Teano-Capua, 이런 경로로 이어지는 길이다.

집정관 아피우스가 포장한 군사도로를 기원전 312년에

만들었는데 이 길은 그 이전 (BC 432-290)에 건설된 길이다. 이 길에 깔았던 돌들을 파내어 곳곳에 진열했는데 돌의 크기가 굉장하다. 보통 돌 하나가 가로가 30-40cm, 세로가 역시 비슷했다. 고로 한번 깔게 되면 수백 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바위덩어리들이었다. 이런 포장 돌은 로마의 장구한 역사의 단면을 보게 한다. 이 크지 않은 길도 저렇게 커다란 돌로 포장을 하였으니 길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을까 싶다.

길의 폭은 3.8-4.1m로 마차 두 대가 피해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된 것 같다(참고로 마차 폭은 말 두 마리의 궁둥이 넓이로 1.455m). 그 옛날 2400년 전에 선조들은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그것은 군사도로로 이웃도시와 전쟁

을 수월하게 치르기 위함이었다.

이 길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 즉 인생은 누구나 길을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길을 만들 때 반드시 누군가 그 길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기원전 312년에 아피우스가 세계최고의 군사도로를 만든 것도 사실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조상들이 비슷한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피우스는 이 옛 길에 아이디어를 얻어 보다 넓고 보다 곧고 보다 멀리까지 연결하는 길을 발전적으로 건설하였을 뿐이다.

인생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길을 만든다. 정직하고 바른 삶의 길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평생 약기를 연주하며 그 길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비즈니스

로 평생 외길을 가기도 한다.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다양한 길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낸다. 마치도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도 나름대로 길을 만드는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길이 후배나 후손들이 기쁜 마음으로 쫓아올 수 있는 길인지 돌아볼 일이다.

끝으로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헌신하신 김 구 선생님의 시를 소개한다.

“눈 덮인 들 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오늘 내가 간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성훈 목사

(밴쿠버 빌라벨비아교회)



하시죠. 그 때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이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는 이것은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2절).

니고데모도 주님의 성전 회복을 보고는 놀라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알았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다만 좋은 선생, 선지자 정도로 치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진짜 거듭난 이들은 주님께 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들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십니다. 완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다 못해 심지어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영속에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몸과 피와 영을 의탁하십니다. 그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없는 군중

용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며, 자신이 주님께에서 떨어진 것이-그의 영혼에 큰 두려움으로, 큰 짐으로 무겁게 누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주님께에 있는 것을 직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염치 불구하고 주님께 여쭙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였 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군중들은 주님이 메시아인줄 알지만, 바로 이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주님께 나왔기에 그렇습니다. 비록 밤에 왔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주님께 왔지만, 만약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몇몇이 주께 나올 텐데, 몰래 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의 마음을 열고 찾습니다. 묻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바꾸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나의 처절한 모습이 내게 다가오기에, 니고데모처럼 나도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나만이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여쭙고자 하는 간절함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듭남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skim,hms@gmail.com

천국 문의 열쇠

(요한복음 3장 1-3절)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요3장의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문이 한 영혼에게 열리는 것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을 여셔서,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한 영혼을 위해 영원한 말씀을 어두움 가운데 나아온 니고데모에게 비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신 첫 계시는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심, 대신 죽으심, 의롭다 칭하심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도 그 사실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당원도 그 증거인 성화도 없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듯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기록하신 그의 서신들의 핵심 내용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 누구보다 더 극적인 거듭남을 경험했기에 그렇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왕 같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극히 작은 자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를 거듭나도록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선포하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들의 내용은, 쉽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직접 계시하신,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며 주석에 불과한 것

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거듭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했던 모든 율법과 선행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정말 당황할 만 하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구원의 핵심인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을 때, 두 손 다 들고 주 앞에 나가 영혼이 될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을 아니, 사실은 나는 아주 약한 자이며 그러므로 나는 이제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내 영에 와 닿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듭날 수 있는 자로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서야 비로소 내 성질과 죄악된 태도가-여태까지는 교만하게 자랑하던 것들

이-이제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이 느껴져서 그걸 던져버리게 되고 내가 죽고, 그 죄악된 태도와 마음이 씻겨나가며, 그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의 인간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서서히 자기의 의가 아무 쓸모없으며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주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에 있던 상인들을 쫓아내어 회복

을 메시아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밤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24절). 니고데모의 앓과 믿음은 주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그 정도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

즉, “니고데모야,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인줄 알고 믿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과 니고데모-이들의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것에는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온전한 교제가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이며, 그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누리는 교제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감사에서 나오는 겸손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공허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에, 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며 순종하려고 결심한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려면 그 증거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 감사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내가 처절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 얘기하면서 이 사실이-바리새인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

페이스북 사용 한달 휴업, 행복감 오히려 상승!

(1면에서 계속)

이러 보고서는 “우리 조사 결과의 변수 중 셀프 보고가 많아 측정 오차와 실험자 요구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s, 실험자의 기대가 실험에 미치는 영향)의 여지가 많다”며 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각종 플랫폼에서 가짜 정보가 유포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빠졌다. 이번 조사는 그런 가짜 정보, 소셜미디어 사이트와 정치 간의 관계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 뒤에

실시됐다.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사용에 많은 비판이 집중됐는데 그런 우려는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 스캔들로 증폭됐다.

2016년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고용했던 정보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에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지난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회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페이스북이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거듭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선 기간 중엔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러시안 봇을 이용한 조직적인 시도가 포함됐다는 보도 후 미국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한 주 동안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런 우려 속에서 청소년 이용자의 페이스북 이용도 줄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페이스북 이용자 비율에 변화가 생겼다. 2015년에는

13-17세 중 71%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지난해는 그 비율이 51%로 떨어졌다. 게다가 페이스북 이용도가 유튜브·인스타그램·스냅챗을 크게 밀돌았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또 다른 퓨리서치 조사에선 전체 몇 주 동안 페이스북을 들여다보지 않은 적이 있다는 성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42%에 달했다. 지난 6개월 사이 페이스북 주가는 하락했다. 지난해 8월 6일 185달러를 웃돌던 주가가 12월 24일에는 125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뒤 올해 2월 8일 기준 167.33달러를 기록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신앙의 자유’ 법적 소송에서 승리한 대학생 단체

기독교 대학생 단체가 2017년 자신들을 쫓아낸 아이오와 대학을 상대로 올렸던 연방법원 소송에서 드디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지난 주 받았습니

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아이오와 대학 안에 있는 Business Leaders in Christ(BLinC)라는 학교 내 크리스천그룹에 들어왔던 어느 한 회원이 BLinC 기독교단체가 학교의 인권 정책(Human Rights Policy)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공개적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룹으로부터 리더십 자리를 거부당했다고 학교 측에 주장했습니다.

BLinC 기독교단체는 학교에게 설명을 했지만 학교 측은 동성애 학생의 편만 들고, 결국 2017년 12월 BLinC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BLinC 기독교단체는 캠퍼스 내에서도 클럽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학교의 처사에 대해, 판사는 먼저 학교가 BLinC 기독교단체를 비롯하여 이번 케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든 단체에게 법원이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다시 학교에 정식 단체들로 등록 상태를 부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 법원은 그동안 학교 행정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었던 무려 33개나 되는 종교 학생단체가 캠퍼스에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할렐루야!

소송이 결린 기독교 BLinC 단체의 주장

BLinC 단체는 증언하기를, “그 회원(동성애자)은 BLinC가 기독교단체인 줄 알면서도 크리스천도 아닌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조차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은 기독교 가치관을 대부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리더로서 세울 수가 없었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감사한 판결

아이오와주 남부지구의 Stephanie M. Rose 판사는 아이오와 대학이 기독교 클럽이 갖고 있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권리 -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해석하면 아이오와 대학교 측에서 인권 정책(Human Rights)을 어느 특정 단체만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단체를 역차별하는 것이기에 그런 정책집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이오와 대학이 일부 단체에게는 “인권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독교) 종교단체들에는 같은 “인권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BLinC 기독교 단체의 변호를 맡았던 Baxter 변호사는 “대학은 애당초 이러한 편협한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는 그런 편협한 게임을 그만 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기독교 단체인 InterVarsity 크리스천 펠로우십이 같은 아이오와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소송 역시 Rose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올해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이 내린 결정이야말로 지



“대학이 정치적 이유로 신앙적 학생단체만 표적 삼아선 안 된다는 상식 재확인”

역차별적인 정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독교 단체인 “Love Works”와 같은 단체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반면, 전통 기독교 단체 같은 BLinC 단체는 학교클럽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LinC 기독교단체의 회장인 Jake Estell은 “우리는 오늘 법정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 단체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리 단체의 본모습대로 행사할 권리를 갖게 해줬다. 이번 승리를 통해 대학이 정치적 이유로 신앙 학생 단체만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재확인시켜줬기에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극히 상식선에서 명확하게 내려진 헌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법원 판결들이 기독교 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LG-BTQ 쪽의 권리만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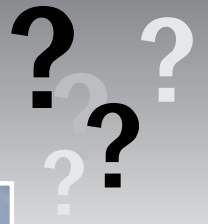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독교 단체와 개인의 헌법적 권리(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대학의 기독교 단체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몇 달 전부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어 영적 회복을 하려고 회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에도 힘쓰고 있으나 이상하게 잘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버에서 Lee

A: 영적침체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예배와 말씀읽기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숨은 죄나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회개와 말씀읽기와 기도로 노력하신다고 하니 다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 좌절 속에 있던 어느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써 일했는데 선교의 열매는 적고 선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갔습니다. 너무 피박이 심했습니다. 그는 실망과 낙담을 이겨 보려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보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지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선교국에서 일하는 선교사의 가정에 초대 를 받게 되었습니다.

찬송의 능력 회복하면 영적침체에서 벗어나

그는 선교사의 집에 갔을 때 벽에 이상한 글을 보았습니다. “찬미해 보았는가? 그는 이 글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자기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서 몇 달간 빈민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얻고 중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성도여러분, 찬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때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과 평안의 축복이 임했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형제님의 문제는 기도도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찬양을 계속해 보십시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운동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각종 위협과 협박이 일어나게 되자 자기를 돕고 함께하던 친구들도 한 사람 한사람 떠나갔습니다. 그 때 루터는 개혁동지인 멜랑히톤에게 “우리가 시 46편을 노래하세. 반대자가 아무리 포악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괴로울 때도 도움이시네” 그러면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말틴 루터는 찬송의 힘으로 새 힘을 얻고 침체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여 영적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페르시아인(PERSIANS)



정의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이란인)도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언어에 의해, 두 번째는 거주지역에 의해 구분되는 종족이다. 파시어(Farsi)라는 페르시아어는 인도-이란계 언어로 이란의 국어다. 아프가니스탄의 상류층 언어인 다리어(Dari)는 현대 페르시아인들의 방언이다.

기원전 1000년 무렵 페르시아인들은 지금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느슨한 관계를 가지던 페르시아 종족은 아케메네스 왕조(Achaemenian dynasty) 하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결합된 일

체가 됐다. 그들의 통일은 곧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족으로 만들었다.

1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점차 보다 복잡하고 강건해진 문화를 유지했다. 이것은 7세기 아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복 사업을 벌이게 된 기반이 됐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야 이란과 페르시아인들에게 대규모 변화가 생겼다.

페르시아인 대부분이 지금은 이란이나 근처 중동국가에 살고 있지만 세계 각처의 여러 나라에도 소규모 페르시아인 공동체를 볼 수 있다.

삶의 모습

중동에서, 페르시아인의 약 반수가 원시적인 인공 관개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또 손으로 짠 물건, 양탄자, 도기와 같은 공예품을 만든다. 석유생산이

페르시아인들에게 많은 직업을 또 제공해준다. 사실 해외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들 중 많은 수가 이 분야에서 일한다.

전형적인 페르시아의 시골 가옥은 진흙으로 만든 단층짜리 주택이다. 나무기둥과 나즈막한 지붕으로 만들어지며 창문은 없다. 빛은 문이나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 마을은 몇 개의 가구로 이루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까지 다양하다. 각 마을의 크기는 주로 농지와 물의 이용에 크게 의존한다. 도시의 주택은 대개 구운 벽돌로 짓는데 기초를 높은 곳에 두어서 테라스가 있다.

도시의 페르시아인들은 5개의 정의된 사회계층으로 나뉜다. 가장 하층의 계층은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사이에 소도시로 몰려든 예전의 시골 사람들이다. 이러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대도시 변두리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 계층이 지역시장 장인들의 대다수를 형성한다. 계층

구조의 가장 위에는 부동산 투자가, 상인, 다른 상업 또는 산업 사업가들이 있다. 사제들은 "올라마(ulama)"라고 알려진 계층을 이룬다.

페르시아 문화의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단위는 핵가족이지만 몇 개의 가족은 함께 합쳐 더 큰 단위를 이룬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부계혈통이며 며느리는 시가에서 생활한다. 이것은 그들이 지배된다는 의미다. 자손계열은 아버지를 따라 이어지며 재산과 유산은 남자에게 물려지고, 가족과 정치적 통치권은 남자에게 속한다. 페르시아인 여성들은 공적으로 남편에게 예속돼 있지만, 사적으로는 그들도 힘 있는 상당한 결정권을 갖는다. 남자들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보호자이며 딸과 자매의 순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결혼은 아직도 중매혼이지만 양 친척의 협의와 인정 후에만 가능하다. 사촌 사이의 결혼이 선호된다.

신앙

아랍인들의 침략 이전에 페르시아인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다. 이 종교는 선과 악의 힘 사이에 영원한 투쟁이 있다고 가르쳤다. 시아파 이슬람교가 16세기에 이란의 국교가 됐으며, 그 때 올라마(사제)들은 민족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페르시아인들은 이트나 아사리 계통의 시아파 무슬림이고, 이슬람의 율법과 교리를 지킴에 있어서 예언자이다. 이슬람은 예언자인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주요 종교다.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인데, 모하메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에는 5개의 필수적인 의무가 있다. (1)그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 라고 시인해야 한다. (2)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3)자선을 충분히 해야 한다. (4)이슬람 달력으로 9월, "라마단(랍잔)"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5)한 사람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향한 순례여행을 가도록 해야 한다. 무슬림은 또한 술, 돼지고기, 도박, 도둑질, 사기, 중상모욕,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슬람 세계는 복음을 들고 침투하기에 지극히 어렵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거리낌 없이 대하며 심지어는 호전적이다. 그들을 진리로부터 막는 난관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파시어로 된 성경과 다른 자료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일어난 진전은 극히 적다. 오늘날 그들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는 단지 몇 개만이 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수는 적다. 이슬람의 장어를 침투해서 접근제한국가에서 사역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이 깨어져야 한다. 기도가 열쇠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회 화재...단 한 권의 성경도 타지 않아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랜드뷰의 프리덤미니스트리교회에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해 교회당이 모두 탔지만 예배당 안에 있던 성경과 십자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당시 화재로 출동했던 코울시티소방소 페이스북(https://c11.kr/60pz) 내용을 소개했다. 소방관들이 맹렬하게 불타는 교회에 도착한 것은 3일 오전 12시 58분쯤이었다. 불길이 너무 강해 소방관들은 뒤로 물러섰다. 이후 화재를 진압하고 교회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소방소 측은 "단 한 권의 성경도 타지 않았고 단 하나의 십자가도 해를 입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소방관도 다치지 않았다.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Thou the odds were against us, God was not)"고 기록했다.

소방소 측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경과 십자가는 실제로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찢터미와 그을림 속에서도 성경은 전혀 타지 않았다.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도 연기에 그을린 자국만 보일뿐이었다.

소방소의 페이스북 내용은 6일 오전 10시 현재 3만9282회가 공유됐으며 댓글도 3만6000여 개가 달렸다.

댓글에는 "악마의 불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풀무불 기적은 사실이었다" "이사야 40장 8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등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美 국경 넘는 불법이민자 대폭 증가

고국의 가난을 못 이기고 미국 남쪽 국경을 넘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대폭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의 남서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 수가 7만6000명이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대부분이 가족 단위 이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개월 간 국경 당국이 구금한 불법 이민자는 26만8050명에 달한다.

100여명씩 떼를 지어 국경을 넘는 경우는 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으로 국경을 넘는 사례는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13건, 2017 회계연도에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행렬(캐러밴·Caravan) 사태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매컬러리 CBP 국장은

"(CBP가 관리할 수 있는 이민자의) 한계점을 훨씬 넘었다"며 "미 국경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CBP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는 이민자 중 90%가 과테말라 출신이다. 맥컬러리 국장은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들은 가장 많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과테말라의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보통 4-7일 동안 차를 타고 북상하면 미 국경 지대에 도착할 수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대부분의 과테말라 국민들은 고국의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미국행을 결심한다. 과테말라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과테말라는 곡물 가격 하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 농부 간 토지권 분쟁 등으로 빈곤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 외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도 꾸준히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에서 살 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온두라스 국민들은 일상적인 범죄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 자녀가 갱단 조직에 발을 들일까봐 고국을 떠나는 이민자들도 많다고 NYT는 전했다.

가족 단위로 미 국경을 넘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가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 법원은 지난해 6월 불법 이민자 가족을 분리 수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후 이민자들이 가족끼리 집단을 이뤄 국경을 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늘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이민자는 불법 월경했어도 국경에서 72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 대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시설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설조차 텍사스에 2곳, 펜실베이니아에 1곳 밖에 없어 매주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석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불법 이민 차단과 국경 보안 강화 정책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첫다운 사태를 불사하고,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온다. 옌친 데 달친 격으로 국가비상사태 반대 결의안이 미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더욱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동창리 이상징후, 새 화약고 급부상

북한의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복구 작업이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복구 작업 움직임은 공개됐으나 북한의 의도는 베일 속에 있다.



미사일 발사장으로 다시 쓰기 위해 복구한다는 설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

를 높이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양극단의 추측이 제기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미사일 발사장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복구라는 전제를 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독재자(김 위원장)를 감싸고 돈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김 위원장과) 관계는 좋다"는 말까지 던졌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끔찍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근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특유의 낙관론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 사실관계 파악, 후(後)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북한과의 '협상 무용론'이 미국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복구가 단순한 시설 보완이라든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재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미국에 양심을 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으로 쓰기 위해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북·미 관계는 다시 충돌 직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사일 발사는 중단됐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으로 주장해온 미사일 실험 중단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불길한 징후"라면서 "북한의 발사장 복구 조치는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CNN방송에 "하노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IA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공산당에 맞섰던 웹브란트 목사의 삶 영화화

"우리는 이 자리에 거룩한 성직자의 자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기 위해 서서 공산당을 지지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성직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의 임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입니다."



1945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루마니아 의회에서 열린 '종교인 회의' 중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1909-2001)가 무대에 올라 했던 연설의 일부다. 1944년 8월 루마니아를 침공한 소련은 성직자들을 앞세워 공산주의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회의를 소집했다. 4000여명의 성직자가 모인 회의는 루마니아 전국에 라디오로 생중계됐다.

공산당 찬양 일색이던 자리에서 웹브란트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 일로 1948년 체포돼 질라바 교도소에서 긴 세월 옥고를 치른다. 1956년 석방된 뒤 1959년 또다시 수감돼 1964년까지 형을 살았다.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투옥된 것이다. 웹브란트 목사는 1968년부터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이 훗날 순교자의 소리가 설립되는 기틀이 됐다.

한국 순교자의소리(공동대표 에릭 폴리·현숙 폴리)는 7일 서울 성북구 솔샘로 본부에서 웹브란트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교적 삶을 살았던 웹브란트 목사를 그린 영화가 전 세계 억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는 웹브란트 목사가 쓴 동명 자서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자회견에서 에릭 폴리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상영돼 호평 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사랑 받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오는 18일 한국 순교자의소리 본부에서 시사회를 연다. 순교자의소리는 교회를 방문해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

미 초등학교에도 반유대주의의 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증오'라고 불리는 반(反)유대주의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대인 혐오 정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계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반유대주의의 성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대는 지난달 16일 유대인 철학자 알랭 핀켈크로트에게 "더러운 시오니스트"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모욕적 발언을 퍼부었다. 핀켈크로트가 과격화된 노란조끼 시위를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알자스의 카첸하임 묘지에서는 유대인 묘비 80여개가 나치 문양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져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곳을 유대인 단체 대표들과 방문하자 일부 프랑스 네티즌들은 "마크롱은 유대인의 약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영국 노동당 의원 9명은 지난달 22일 제러미 코빈 당 대표의 반유대주의의 노선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좌파 성향인 코빈 대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독일 작센주에서는 지난해 8월 반유대주의단체들의 대규모 시위 도중 유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공격당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9. 한치홍(1869-?)

한치홍이 그의 부인과 아들과 함께 일본 마루 편으로 1903년 4월 30일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 34세였으니 1869년경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다. 하와이로 이주할 당시 그의 부인은 29세였고, 그의 아들은 11세였다. 하와이로 이주하기 전 그가 평산에 거주했다는데 평안북도 평산인지 황해도 평산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는 1905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 남가주 리버사이드 인근으로 이주하였다.

윤문숙과 안경식이 1907년에 찬관사로 3개월 징역에 처했는데 한치홍이 김경제와 함께 150달러를 모아 안경식의 벌금을 대납하고 그를 석방하였고, 벌금을 물어도 윤문숙을 석방할 수 없었다고 하니 이에 신한민보가 한치홍의 의리를 높이 샀다.

한치홍이 1908년에 중가주 샌포드에서 거주하던 이듬해에는 아이다호주의 아이드리아 수은광에서 일했다. 그가 1915년에 다뉴바에서 자농을 하였는데 당시 11인의 한인 동포가 농사하는 토지는 총 124.5에이커에 해당했다니 대단하다.

1918년 3월에 개학식을 할 때 한치홍은 본교 역사를 소개했다. 그해 9월 그가 이 걸의 병원비에 후원하였다.

한치홍은 예배당 건축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해 8월 그는 맨티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25불을 헌금하였다. 본 교회 재무였던 김원택의 보고에 따르면 총 250달러 35센트를 모금하였는데 최고로 많이 헌금한 자는 31달러 85센트를 헌금한 미국 남감리교 감리사인 익톤 목사였고 그 다음이 한치홍이었다.

1918년 10월 10일에 상항 피척터널의 백인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감독 루부스 목사의 사회 하에 미국 남감리교회 지방연회가 있었다. 이날 한치홍은 맨티카 한인감리교회의 전도사로 파송 받았고, 최능익은 재신임을 받았다. 그는 최능익과 함께 북가주 순회 목사였던 임정구 전도사가

에서 서북쪽으로 126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중가주 다뉴바는 남동쪽으로 14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19년 3월에 두 번의 모임이 있었다. 그달 1일에 문양목 교장의 취지 설명으로 시작된 국어학교 개학식에서 한치홍은 순서를 맡지 않았다. 그달 27일에 맨티카에서 조직한 대한여자전도회의 제2회 기념식이 있었을 때도 그는 순서를 맡지 않았다.

1919년의 보고에 따르면 출석 교인은 30명이었다. 1918년의 출석 교인이 56명이었던 점으로 보아 한인 동포의 이동이 많았음을 짐작된다. 올해의 총 한인감리교인수는 252명이었다. 이 해에 1,200달러의 건축비로 예배당 겸 사회관을 건축했다. 한인 교인들이 이 건축비를 헌금하였고, 다른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한치홍은 약 1년간 자비랑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일절 기념행사에서 한치홍은 기도순서를 맡았다. 16인 남녀 동포가 모여 태백중 광야에 가서 오후 1시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차려놓고 점심과 저녁 등 두 배를 배부리 먹고 흥미 있게 놀다가 서천에 걸린 햇빛을 빗하여 각자 자동차로 집으로 돌아왔다.

당일 기념식은 회장 위영민이 개최한 후에 일동은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 경례식을 한 다음에 한치홍이 기도를 하였다. 이후 신두식이 취지를 설명하였고, 제2절 애국가를 합창하여 일반의 정신을 새롭게 한 후에 소대도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병호의 연설과 송치은의 감사담으로 순서를 마쳤다.

한 물품을 30여 원어치 기념물로 주매 고맙게 받았습니다. 태프트라는 정든 곳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성에 계신 김원택 형님은 사업의 분주함을 불구하고 위정 태프트까지 오셔서 섬섬히 작별하였고, 김원도 누님은 사랑의 기념 예물을 주십디다. 사랑하는 조카 한영대 박사는 보신하는 약을 수십 원어치 기념으로 선사 하디다. 나의 자식 상호는 서양 집에서 공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볼 수 없음을 짐작하는 홍순택 씨는 자기 자동차를 태프트까지 타고 와서 우리 부부를 태워 딜라노까지 와서 여러 형제와 작별도 하고 전별 만찬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 다시 홍 씨의 차를 타고 다뉴바, 리들리 등지를 심방하였습니다. 오종국 씨의 한인 구 누님은 내 아내에게 명주 드레스 한 갑을 기념으로 주며, 이치안, 오창근 두 분 형님택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딜라노 한준상 씨 형님택에서 풍성한 전별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동부인과 따님이 돈 30여 원을 내 아내의 옆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어준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마지않습니다. 홍순택씨 자동차로 스타트에서 와서 내 자식 상호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백대일, 김필권, 박양태, 한교준 제씨택에서 사랑으로 주신 파티는 잊을 수 없고 또한 월넛그로브에 계신 이유일 의사가 내 아내의 이도 고쳐주고 또한 주신 음식을 감사합니다.

상항에 총회장 백일규 씨가 23사 전부터 나의 일을 성력껏 보아주시심을 잊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문양목, 전득부, 양주은 제씨택에서 사랑으로 차려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새크라멘토를 잠시 심방하였을 때 정동룡, 김신오 양 씨 택에서와 박중만씨와 성대한 음식을 차려 주심으로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할 것은 누구시나 귀국하시려거든 '인컴 택스를 예비해서 상항 와서 백일규씨와 의논하면 모든 것을 잘하여 드리나이다. 여러분의 참고가 될까 하여 이번 우리 일행 중에서 세금 물어준 것을 기록합니다. 나는 내외 가진 사람으로 27월 50전, 황우경 씨는 136원 몇전, 박인선 씨는 93원, 김관영 씨는 83원을 물었습니다. 이전보다도 심하게 받아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매님들과 나의 자식들을 미국에 두고 며칠 상오 12시에 상항 부두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붓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희망은 본국 가서 장래 예비를 하고 나의 자식 상호의 식구들을 데려갈 생각을 한 즉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계신 동안 부디 평안히 계시다가 후일 다시 만나기를 바라나이다. 17일 한치홍 올림

태프트
한치홍과 그의 가족은 다뉴바와 스타튼을 거쳐 태프트로 이주했다.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1918년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 받아 1년간 사역 예배인도 외 건축비 부채상환과 대한여자전도회, 국어학교 협력 1903년 가족과 도미, 26년 미국생활 마치고 1930년 부부만 귀국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한치홍이 맨티카의 국민회 지방회 부회장이 된 때가 1916년 5월이었으니 그 이전에 맨티카로 이주한 모양이다. 1917년 3월에 미국 남감리교 감독 램버트 목사가 미국 남감리회 북가주 한인 지방연회를 소집하였을 때 한치홍은 맨티카 한인감리교회의 최능익과 함께 2인 대표 중 한 사람이었다. 이날 임정구 전도사가 순회 목사로 맨티카 한인감리교회에 파송되었고, 본 교회 전도사로 최능익을 임명하였다. 그달에 보고한 다뉴바 예배당 건축 결산보고서에는 그가 15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날 헌금 합계는 508달러 70센트였다.

한치홍은 한국학교와 한인사회에 힘을 쏟았다. 한동안 폐교하였던 한흥국어학교를 계속하기로 하고 양주은의 부인 양제현을 교사로 모시고

맨티카를 방문하지 않으면 교회를 목회했다. 당시 임정구 전도사는 오를랜드, 스타튼, 새크라멘토, 윌로우스 그리고 맨티카를 책임진 순회 목사였다.

최능익 전도사와 함께 한치홍 전도사의 사역 중에는 주일예배 인도 외에도 건축비 부채 상환, 대한여자전도회 활동 협력 그리고 국어학교 협력 등이 있었다. 김경보가 증정한 플로라도 거리의 땅 위에 1,500달러의 건축비로 1918년 9월 22일에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건축으로 인한 300달러의 상환이 숙제였다. 맨티카 예배당 부채는 비단 맨티카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인근 한인 동포들도 큰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해 12월에 북가주의 맥스웰과 중가주 다뉴바에서 본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금한 자가 53명에 이르고 총 85달러가량을 헌금하였다. 북가주 맥스웰은 맨티카

1926년 9월 12일 오후 2시에 스타드 오일 회사 클럽 하우스를 빌려서 이곳 한인 남녀 24명이 모여 토마스 D. 맨스필드 박사의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만수필로 알려진 그는 1912년 캐나다 장로교의 파송으로 함경북도 회령에서 활동하다가 세브란스 의과 전문학교 재단 이사로서 2년간 봉직하는 등 14년간 한국에서 사역하였고 도미 후 위외의 오일 회사에 임사하였다. 그는 한국어도 매우 잘하였다. 이 환영회는 위영민의 사회로 일동이 5장 찬미를 부르고 한치홍이 기도한 후에 임지성 부인이 애국가 한 곡을 부른 후 맨스필드 박사가 한국말로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말씀을 하였는데 일반 청중이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후 이병호가 답사한 후 일동이 찬미로 폐회하고 다과회가 이어졌다.

1927년 3월 1일에 있었던 제8회 삼

름 쏠아지는데 보는 자가 동정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아래의 전별담을 기고했다.

-미국서 26년 성상 고락을 같이하다가 이제 서로 작별할 때에 섬섬하고 심분 눈물을 금할 수 없나이다. 이 세상에 작별이라는 것은 참말 무정하고 사정없는 것이올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머느리와 어린 손자 손녀를 미국에 두고 고국을 향할 때 발길이 옮겨서지 않고 정신이 아득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매님께 감사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떠나려 하나이다.

이 사람이 태프트에서 떠나올 때 먼저 임지성, 최창진, 이병호, 위영민 제씨택과 또한 홀로 계신 여러분 형님들이 사랑의 전별 만찬을 베풀어 주시매 무한한 감사와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박춘근 군은 귀

damien.sohn@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h3>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3:30(월-토)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 5부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5-46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60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미)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미권 (장소:KDC, 킹덤빌딩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박성원),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장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미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미예배: 오전 2:00(대덕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기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미)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찬양: 오후 5:30(월-토) 생령대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미)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례우예배: 오후 10: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8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의 교만은 날개 없는 추락

리더의 최대 결림돌은 교만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해리 트루먼이 재선에 도전했다. 그러나 당선에 확실한 후보는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이 된 사람이다. 그는 스탕딩 상업대에 진학해 첫 학기에 타자와 부기를 배웠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중퇴했다. 반면 듀이는 명문대학인 미시건대와 콜럼비아대 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듀이는 자신감이 넘쳤다. 당시 미국의 뛰어난 정치부 기자 50명에게 물은 결과, 전원 듀이의 승리를 예측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던 때이다. 선거 이튿날 아침 시카고 트리뷴지는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려고 애써야 한다. 스스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려면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겸손해야 한다.

심리학과 기독교 현실주의에서의 교만

정신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매우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자신을 어떤 면으로든 내세우지 못해서 못 견뎌야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데 이 본능을 억제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도덕적 교만이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니버는 다섯 번째 교만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집단적 교만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즉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집단적 교만을 가지게 된다.

교만의 7가지 특성과 4가지 해결책

교만한 리더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교만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 둘째, 교만한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치 않고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다. 셋째, 교만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만한 리더는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막아 버리는 자기도취에 빠져 더 이상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섯째, 교만한 리더는 단점을 인정치 않아 타인들까지 파멸로 인도한다. '내 입기 중에는 성과 없이 전쟁을 멈출 수는 없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몇 대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도 미국은 가망 없는 월남전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여섯째, 교만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거나 칭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교만의 4가지 해결책: ①하나님 임재 확신 ②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인정 ③좋은 멘토에게 지혜구하기 ④자기 잘못 실패 인정

듀이, 트루먼을 누르다'라는 헤드라인을 선명하게 뽑았다. 하지만 미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대 역전극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루먼을 선택한 것이다. 트루먼 정부에서 국무 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은 트루먼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트루먼은 리더의 최대 결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그와 그의 일 사이에는 한 번도 자존심이 꺾여든 적이 없었다." 다 이겨 놓은 싸움에 패배하는 리더들이 많다. 바로 교만 때문이다.

교만의 폐해는 분노

교만의 폐해는 분노이다. 사람은 교만하면 쉽게 분노한다.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을 때는 쉽게 분노하게 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교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 상처가 위장되었을 뿐이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 결과 교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자신의 명예 등 자신의 것이 자주 의식되어 표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기저에는 열등의식이 숨어 있다.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Afred Adler)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명을 이루어야 할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개신교 신학자이며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는 교만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법이다. 둘째로는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하다. 셋째로는 권력적인 교만이다.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만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넷째로는

맺을 수 없다. 일곱째, 교만한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오염시킨다. 왜냐하면 교만한 리더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교만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교만의 4가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교만이 해결된다. 교만한 자는 믿을 내려다보는데 너무 바빠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교만한 리더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해야 한다. 셋째, 좋은 멘토를 두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만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교만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죄요,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끈질긴 악이다. 또한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가는 끈질긴 죄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교만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내 생각너머의 삶

시애틀에 감의차 다녀왔다. 비행기에 올라 돌아오면서 창밖의 끝없이 펼쳐지는 하얀 구름을 보니 팬스레 울컥 눈물이 쏟아진다. 그렇구나. '내 생각너머의 삶'은 끝이 없는 거구나. 행복의 눈물이라. 세월이 힘들고 사람들의 맘이 강박해져도 이렇게 진솔하게 가슴의 말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직도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는 곳이 있다는 거... 많이 지치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해일이 빛나는 사모님들의 얼굴들을 보니 오히려 내 속에 힘이 다시 불끈 주어진단다. 그렇다. 누구나 살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다 놔버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히려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 부여잡고 달려가자... 사모님들을 위로했다. 사실은 내가 위로를 받고 왔는데 말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기 되는데... 그리고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이 않을 텐데... 삶은 그런 것 같다. 일단 내가 발을 내 디어만 알아지는 비밀이 있다. 흥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지팡이를 내려졌을 때도 아니라, 흥해는 모세가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갈라졌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먼저 발바닥으로 밟을 때 알아지는 비밀이라. 그런 걸 우리 용기요, 결단이고, 담대요...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믿음'이라. 그렇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거기에 지혜의 가속도가 붙고 어떤 사는 것이 더 쉬워지고 매달리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일들도 있어지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에 이런 연습을 해 보았다. 한 발자국 더 느리게 하는 연습... 조금만 더 천천히 씹어 먹으며 밥과 반찬을 음미해 보고 조금만 더 유려한 걸음걸이로 땅과 나무와 건물과... 그런 것들과 인사해 보고, 가끔은 게으르게 사는 자신을 용서해 주면서 조금만 더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분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연습... 늘 바쁘고 조금씩 사는 나의 모습은 바로 지혜 없음에서, 욕심에서, 게으름에서 오는 산물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환한 길에 접어들면서도 아직도 서툰 나의 삶의 현 주소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때로는 책을 잘못 고르듯이, 의사가 오진을 하듯이 상대의 마음도 또 나 자신의 마음도 잘못 진단하여 맘을 상하게 할 때도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한 진짜 마음이 따로 있음을 알아주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고 아껴주고 조금씩 도와주고 그리고 그게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는 것...

그렇다. 익숙한 일상을 떠나 생면간산에 다녀오면 그만큼 인생이 커지고 성숙해져야 하리라.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던 많은 일상들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고 좋은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여행의 열매가 아닐까. 내 시야가 너무 좁아 그 잣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너머의 무한한 생각과 삶이 있다는 것,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넘어 본다.

changsamo1020@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2부예배: 오전 0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원찬양: 오전 10:00 화, 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특별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특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30분) 주일2부 오후 1:45(30분)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3:10(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 찬양(매주) 오후 7: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전 1:30 NCF영어: 오후 1:3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5:26(토) 5:00(일) 금요찬양: 기도, 찬양, 성경, 사경, 묵상 금요찬양: 기도, 찬양(매주) 오후 7:3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목회서신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하나님은 좋은 창조자이시고 좋은 화가 이신 것 같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려 주시는 위대한 화가이시고 우주 속에 그려 놓으신 아름다운 그림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과 은하계의 모습들은 멋진 한 폭의 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화가 되심을 증명하는 모습들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화가이신 하나님은 주를 믿는 사람들 마음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축복과 빛나는 비전의 그림을 그려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니" 라고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도화지에 좋은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설교는 말씀의 언어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림을 그려 주시는 위대한 화가이십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는 잠시 한국 교회와 교환 목회와 집회 인도 차 잠시 한국에 들어 와서 고향을 찾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꽤 시골인지라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어릴 적 교회

가던 길을 자동차로 제 아내와 함께 가면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십리 정도의 시골 작은 산길을 걸어 여름이나 겨울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찾아가던 저의 모습을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 어린 제 마음의 도화지에 그려진 그려주신 하나님의 좋은 그림들을 기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록 시골 소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의 그림을 제 마음 속에 그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자라던 제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그림을 그려주셔서 기도하게 하였고 마음속에 그려 주시는 꿈과 소망과 희망의 그림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그림을 이루어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려주신 좋은 그림의 가치를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림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복지 정복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고 용기 백배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던 그들은 이제 지치고 태만해지고 이만 하면 댕다는 식의 자족감으로 남아 있는 가나안 복지 정복전쟁을 중단하고 미루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적지에 파송하여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 오게 하였습니다.

지침을 따라 상당하고 자제하게 그림을 그려오게 한 것인데 그것은 곧 가나안 복지 지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복지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주셨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그 그림을 마음에 그리게 하였고 온 백성들은 비

록 아직은 미완성의 가나안 복지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도화지에는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고 누리는 좋은 그림을 마음에 그려 두어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말고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좋은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해 전 제가 백악관에 단체로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오셔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백악관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 때 생 각난 한 흑인 여자아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흑인 목 사님의 딸인 그녀는 어린 시절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 오피스 복도를 지날 때 오피스 툴에서 집무를 보던 귀한 모습의 백악관의 남여 직원들을 보고 마음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자라면 저기 저 사람 들처럼 대통령을 도와 일하는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지워 지지 아니하는 백악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늘 기도하던 그 소녀는 결국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흑인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 되어 오랫동안 부시 대통령을 도와 일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바로 유력한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여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좋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좋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좋은 글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생활을 통하여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봉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도화지에 좋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손에 영적 장군의 별 계급장을 쥐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두 손으로 꼭 잡아 위대한 축복의 그림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인 400여명 참석...한인교계 동참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LA 한인타운 월터 빌라바드 선상 놀판디와 옥스포드 사이에서 열렸다.

한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는 3.1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연출한 플래시 몹 '그날을 잊지 않으리'가 펼쳐졌다.

이어 유관순 열사 의복을 입은 참가자들을 선두로 수백여명의 한인들은 하늘 높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월서를 따라 옥스포드 도로 행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랄프 안씨는 페이

드 카로,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 '이석' 황실 문화재단 이사장은 도보로 선두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이끌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남가주 목사회 임원들을 비롯한 교계인사들도 퍼레이드에 동참했다. 퍼레이드에는 최석호 CA 주 하원의원과 데이빗류 LA 시의원과 박영선 부에나파 시의원 등 한인 정치인들은 물론 앤소니 폴탄티노 CA 주 상원의원과 미겔 산티아고 CA 주 상원의원도 참가해 한인들과 3.1절 100주년을 축하했다.

오후 3시 퍼레이드 행렬이 옥스포드와 월서에 설치된 야외 공연장에 다다르자 각종 공

연이 이어졌다. 고르 예술단의 북 공연을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전통 무용 등이 펼쳐지며 퍼레이드에 흥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화가 권용섭 화백이 독도지킴에 대한 그림 세례모니를 펼쳤으며 야외 공연장에는 대형 한반도 지도가 설치돼 3.1운동이 벌어진 해인 1919년과 같은 숫자의 1919개의 무궁화 꽃을 쬐는 이벤트도 개최됐다.

이날 3.1절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는 원래 지난주로 예정됐다가 우천으로 한 주가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우선 퍼레이드에 함께하고 축하공연 피날레로 플래시몹 공연을 하기로 했던 뮤지컬 '도산'팀이 한국문화원에서 잡힌 공연으로 인해 축하공연 피날레를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울동을 하는 플래시몹으로 대체가 됐는데 급조된 느낌을 주었으며 타인종의 참석이 거의 없어 우리들만의 잔치로 흘러버린 아쉬움을 남겼고 3.1만세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심분 발휘하지 못한 점은 올 연말까지 열리게 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관련행사에 보완될 점으로 지적됐다.

(박준호 기자)



세계기도일예배에서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역 회원들이 예배를 마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2019 세계기도일예배, 예배문 작성국 슬로베니아

2019 세계기도일예배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9일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에

서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역(회장 유화진 권사) 주최로 열렸다. 올해는 슬로베니아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으로 예배가 진행됐다.

최미란 사모 사회로 열린 예배는 드림교회 크로마하프림의 전주와 유화진 권사의 환영 및 세계기도일 소개로 시작됐으며, 슬로베니아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어 '인사와 나눔', '부름과 응답', '고백과 기원', '말씀 나눔과 선포'로 이어졌으며 김지훈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봉헌, 슬로베니아를 위한 증보기도, 세계를 위한 합심 기도, 약속과 파송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이종천 목사(인랜드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봉헌시간에 드러진 헌금은 빈곤 차별 인권 사각 지역에 놓여있는 슬로베니아 여성들을 위해 사용된다.

(박준호 기자)



2019 미주서부지역 장애인교회학교 교사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장애인 교회학교" 주제

2019 미주서부지역 장애인교회학교 교사세미나

국제장애인교회학교협회(공동대표 김해용 목사, 장경일 목사)가 주최한 2019 미주서부지역 장애인교회학교 교사세미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장애인교회학교'라는 주제로 8일과 9일 양일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첫날 오전 김해용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

강조하며 "교회가 차별 없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대접받지 못했다. 그래서 장애인교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장애인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모두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해용 목사는 "지난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정의가 실종됐던 역사였다. 장애인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별 없이 다 같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정의로운 사역에 있어 거침돌 되는 요소들이 있다. 1)사역자들이 자기방식만 내세우면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시련이 일어난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에 있는 하나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2)이기적인 동기로 섬기면 내가 주인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선택적 제한적 봉사는 이기적 봉사다. 4)헌신 실천의 불균형. 한국 사회는 교회를 우려하는 곳이 됐다. 5)은혜가 없는 섬김.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아가페사랑이 될 수 없다. 장애인자녀와 비장애 자녀가 있을 때 누구를 더 많이 줄 것인가?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예루살렘교회는 역사상 교회모범이 된다. 나눔과 섬김이 있었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현주 전도사(나성영락교회)가 '나성영락교회 공과공부 앰 활용'에 대해 강의했으며 제니퍼김(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파운데이션 후원회장)이 '우리아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해용 목사가 '캘린저캠프 탈출'이란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둘째 날 오전은 '장애인의 법적 사회적 인권'에 대해 이시연 박사(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가 강의했으며 김은경 미술치료사가 'Initial assessment tools and Benefit for therapy'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에는 윤수정 변호사가 '특수교육의 정의와 기능, Navigating the IEP', 제이미자 선생이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와 법', 김해용 목사가 '교사의 역할과 자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한 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가 공연했으며 박숙희 선교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회복과 생명력" ... '부모회복학교의 실제' 강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HMMS 리더십 컨퍼런스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한 부모회복학교(HMMS)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 3월 5일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강학구 목사)에서 열렸다.

약 20여명의 부모회복학교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대표간사로 미주지역 부모회복학교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조희창 목사가 "회복과 생명력"을 주제로 한 주제 강의와 리더훈련과정으로서 "부모회복학교의 실제"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장로교회 담임이자 미주동부 부모회복학교(휴스) 사역 디렉터 강학구 목사가 "부모회복학교의 목회적 적용"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동 교회는 낮은울타리 필라델피아 지부와 함께 6기까지 부모회복학교를 주최하며 많은 회복의 열매를 맺어

왔다.

또한 강의와 더불어 교회와 각지부에서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회복사역과 가정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목회자, 사모, 리더들이 자신의 삶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발표를 한 강학구 목사는 "처음 부모회복학교를 접했을 때 하나님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부모회복학교의 신학적 기초가 참 좋았다"며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교인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매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지성소예배), 강의, 기도시간 등으로 구성되는 부모회복학교는 낮은울타리 각 지부와 본부에서 봄, 가을에 열리는 6-8주 과정의 평신도 과정이나 목회자과정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로 도입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부모회복학교(HMMS) 외에

도 자녀를 위한 자녀회복학교(TEENZ HMMS, KIDZ HMMS)를 영어,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이 준비돼 있다.

3월 17일(주일) 오후 5시30분에는 필라델피아 지역을 대상으로 필라델피아 부모회복학교 7기가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에서 개강되며 4월 1일(월) 오후 7시30분에는 뉴저지 지역을 대상으로 뉴저지 휴스 13기가 시온성교회(이수원 목사)에서 개강된다.

문의: (646)300-4790, re1907@gmail.com (기사제공: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HMMS 리더십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교계 게시판



패밀리터치 프로그램 안내

뉴저지에 있는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3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을 발표했다. △시니어 프로그램: 3월 6일-6월 26일 매주 수요일, 수채화교실, 합창교실,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교실 △자녀양육세미나: 3월 12일-4월 30일 오후 7-9시 매주 화요일 △가족관계 감정훈련: 3월 14일부터 9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12시 △Just Show Up/오디오 북클럽: 3월 15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 △필링클럽: 4월 1일-5월 20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문의: (201)242-4422

교사 세미나

뉴욕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종대 목사)가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가 4월 20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뉴욕교회(김성기 목사)에서 열린다. 교육부 담당 교역자, 총무, 교사, 서머미션 팀(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비는 55달러(after Apr.13, \$75) 점심 및 교재 제공. 온라인 등록 <https://goo.gl/forms/1SNpKfD8rufuVEgf2>

▲문의: (312)286-4646 bigbell59@gmail.com

KAPC 뉴욕일원 4개 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5개 노회(뉴욕-1721호 10면 개재, 뉴욕동, 뉴욕서, 뉴욕남, 가든)가 3월 5일 일제히 봄 정기노회를 가졌다. 이번 노회에서는 새 임원을 선임했으며 목사안수식도 뉴욕노회 4명, 뉴욕서노회와 가든노회 각 1명 등 총 6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뉴욕동노회

뉴욕동노회 제 84회 정기노회는 뉴욕성실장로교회(이길호 목사)에서 열렸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정준성 목사 △부노회장 허민수 목사 △서기 신철웅 목사 △부서기 문덕연 목사 △회록서기 이육주 목사 △부회록서기 채영준 목사 △회계 김인철 장로 △부회계 강성준 장로.

회무처리를 통해 ▷열린문장로교회(허민수 목사) 정영승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와 가입 ▷은누리장로교회(문훈 목사)가 추천한 박광석 목사 회원가입 ▷뉴욕성실장로교회 강윤희와 이태규 장로고시 ▷뉴욕성실장로교회 채영준 부회록서기 임명

△노회장은 조셉리와 현종영 2명이 합격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회 권영국 목사, 기도 전현수 목사, 설교 조덕남 목사, 성찬예식 집례 이재택 목사, 축도 총회장 김재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4:11-13), 서약, 안수, 공포, 권면 이승원 목사, 축사 이준호 목사, 광고 피윤생 목사, 축도 조부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남노회

뉴욕남노회 제 16회 정기노회는 라클랜드 새교회(조덕남 목사)에서 열렸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조덕남 목사 △부노회장 임홍섭 목사 △서기 박준영 목사 △부서기 조영찬 목사 △회록서기 심언 목사 △부회록서기 조성희 목사 △회계 광병국 장로.

목사고시는 조셉리와 현종영 2명이 합격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회 권영국 목사, 기도 전현수 목사, 설교 조덕남 목사, 성찬예식 집례 이재택 목사, 축도 총회장 김재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든노회

가든노회 제84회 정기노회는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에서 열렸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김재호 목사 △부노회장 이종식 목사 △서기 박해장 목사 △부서기 이준성 목사 △회록서기 오종민 목사 △부회록서기 김지희 목사.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 박승필 씨 목사안수 후 장빙 허락 청원을 했으며, 오후 2시30분부터 목사안수식이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서노회

뉴욕서노회 제84회 정기노회는 뉴욕백민교회(임일송 목사)에서 열렸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임동열 목사 △부노회장 박종윤 목사 △서기 오영상 목사 △부서기 박종욱 목사 △회록서기 임일송 목사 △부회록서기 이종주 목사 △회계 한병현 장로 △부회계 명노해 장로.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열 목사 인도로 기도 임희관 목사, 설교 임동열 목사(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왕하 18:5-8), 성찬예식 집례 오영상 목사, 헌금기도 지민철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노회를 마친 후 한성욱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을 거행했다.

안수식은 노회장 임동열 목사 인도로 기도 정관호 목사, 성경봉독 이종태 목사, 말씀 이종열 목사(“거룩한 사명”, 딤펀



KAPC 뉴욕노회 목사안수식에서 4명의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목사는 목사답게...우분투 마음으로

제47회기 뉴욕목사회 제1차 임실행위

제 47회기 뉴욕목사회가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 뉴욕새힘장로교회에서 제 1차 임실행위위원회를 열었다.

목사회는 회무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2월 18일 신년기도회와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 회원교회 임직예배, 회원 가족 장례예배, 임원회 등의 사업보고를 했으며 행정보고, 회계보고(차기 임실행위 보고), 안건토의 등의 순서를 가졌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진화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김정길 목사), 기도 이성현 목사, 말씀 한재홍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우리를 위하여 부르는가?”(행11:24-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님들



제47회기 뉴욕목사회 제1차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만 있으니 쓴소리 좀 하겠다”고 운을 뗐 후 “본문에서 바나바에 대해 언급한 ‘착한 목사’, ‘성령충만한 목사’, ‘믿음 있는 목사’로 불러야 한다”며 “진실한 신앙고백을 갖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역목회로 이 민교회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목사는 “세상이 악해도 목



KPCA 동북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회자윤리위원회 구성안” 상정 KPCA 동북노회 제 32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 제 32회 정기노회가 지난 11일 저녁 5시 뉴욕목양교회(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동북노회는 총회에 △“목회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헌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타노회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타노회 통합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노회규칙과 제반 내용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고 만족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합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타노회와 통합”은 KPCA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 이안이 통과되면 뉴욕노회와 동북노회, 유럽노회가 통합하게 된다.

이번 노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오영관 목사 △부노회장 박용진 목사, 정연오 장로 △서기 최명혜 목사 △부서기 이상훈 목사 △회계: 미정 △부회계: 이진표 장로 △회록서기: 최병관 목사 △부회록서기: 미정.

이날 헌의부는 △뉴욕유니온기초 설립 청원 △최병관 전도목사 청원 △목양교회 송병기 목사 원로목사 정임 △은혜교회 박경구 김응식 피택장

사는 목사답게 예수님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분투(ubuntu,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의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이날 회장 박태규 목사는 교협이나 타 단체와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사회원들의 관심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몇몇 증경회장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목사회는 부활절 연합찬양제를 위한 제 1차 준비기도회를 3월 18일(월) 오전 11시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가지며 3월 25일에는 증경회장단 위로 및 간담회를 갖는다.

회의는 임재홍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로 고시청원 등의 헌의안을 보고했다.

회계보고는 수입 13,126.03달러 지출 6,778.11달러로 보고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영관 목사 인도로 기도 정연오 장로, 설교 이은희 목사, 성찬식 집례 송병기 목사, 광고 박용진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이은희 목사는 “현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처방”(계3:14-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첫째, 불로 연단한 금처럼 고생을 사서 하라 둘째, 흰 옷을 입어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말라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범피한 눈이 되지 말라며 어떤 시련과 연단을 견디는 명품인생이 되는 동북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장 원종관 목사가 방문해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기뻐했으며 이기백 미주장신대 학장이 방문해 I-20발급과 TRACS가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북노회는 목사회원 42명, 장로총대 6명 등 총 48명, 19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서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남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희태, 신동기, 박화중, 이숙규

KAPC 뉴욕노회 목사안수식

뉴욕노회는 3월 5일 오후 6시부터 노회장소인 오메가선교회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렸다.

임직자는 김희태, 신동기, 박화중, 이숙규 씨로, 뉴욕새사람교회는 김희태 목사를, 뉴욕새별별장로교회는 이숙규 목사를, 뉴욕새생명장로교회는 박화중, 신동기 목사를 각각 부목사(전도목사)로 청빙했다.

예배는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순 목사, 성경봉독 김재형 목사, 특별찬양 청지기합창단, 흥춘식 목사(노회장)의 설교 후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가 진행됐다.

흥춘식 목사는 “사역자의 자

세”(고전2: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셨다. 주님을 향한 자세에 따라 그 짐은 가볍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당하겠다는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라, 거룩해지라, 자랑하지 말라, 자신을 잘 알라” 등의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신동기 목사의 특주 후 이영상 목사의 권면, 순환권 목사의 축사, 김희태 목사의 답사, 허윤준 목사의 광고 후 임직자들이 위한 통성기도 후 이규본 목사가 마침기도를 했으며 신동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김희태 목사는 “우리는 사랑에 빛진 자”라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갈겠다”고 말하고, “29년전 콜링을 받고 이제야 부르심에 답하게 됐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교회 협력선교사, 미디어선교사로” 씨즌 기독교뉴스 창간10주년, CBSN개국 4주년 감사예배

씨즌 기독교뉴스 창간 10주년과 CBSN 개국 4주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3월 10일 오후 6시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씨즌 기독교뉴스와 CBSN 뉴욕기독교방송 대표 문석진 목사는 “씨즌의 미디어 사역 10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목회자와 스테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독자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다. 겸허한 자세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힘차게 사역할 것이며, 복음의 통로이자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을 다짐한다.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서, 미디어 선교사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 사회와 그레이스즈 전도사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이지용 목사의 기도, 최재복 장로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박진원, 피아노 김성혜의 찬양이 이어졌다. 설교 후 흥보영상 상영, 문석진

목사 인사말, CBSN 챔버 앙상블의 연주, 심화자 목사의 헌금기도, 영상 축사 및 권면 송병기 목사, 축사 정순원 목사, 임병남 목사의 내빈 소개 및 후원약정 소개, 뉴욕장로성가단, 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 무용단의 공연 등이 계속됐다. 문석호 목사의 축도, 박윤선 목사의 만찬 기도도 모든 순서가 마치고 식사와 교제를 했다.

2009년 4월 문석진 목사를 비롯한 네 명의 목사는 ‘복음을 지키고 천국을 확장하는 언론티’라는 표어 아래, 기독교 종합미디어그룹 씨즌과 인터넷 신문 기독교뉴스를 시작했다. 이어 2014년 기독교뉴스 인쇄를, 2015년 인터넷 방송 뉴욕기독교방송 CBSN을 설립했다.

씨즌 미디어는 월 10달러로 방송사역에 동참할 1천명의 방송선교사를 모집한다. 기부금은 연말 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청문의: (718)414-4848

KAPC 남가주노회 LA노회 정기노회

남가주노회

미주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남가주노회가 24개 교회와 80명의 목사, 장로로 구성된 남가주노회 64회 정기노회가 34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5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최동진 목사가 노회장에, 이동진 목사가 부노회장에 선출됐다.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정광욱 목사(글렌데일그리스교회) 기도, 최경철 목사(에베레셀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최동진 목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딤후3:15-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윤목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김민범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 회무는 특별한 사항 없이 은혜롭게 진행됐으며 임원선출을 했다. 다음은 2019 KAPC 남가주노회 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최동진 목사(샌디에고 반석교회) △부노회장: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서기: 이항영 목사(남가주 기쁨의교회) △부서기: 고창훈 목사 △회록서기: 최경철 목사 △부회록서기: 정경민 목사 △회계: 경준수 장로, △부회계: 이영길 목사.

(기사제공: KAPC남가주노회)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동안 빅토빌예수마음교회에서 진행된 노회 개회예배는 박대원 목사의 인도 하에 김현인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던 후 8:35-43의 본문으로 김성일 목사가 설교했다.

'신앙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김 목사는 여러 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추구했던 자들과 잘못 보고 구결하는 입장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바디매오를 대조하며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이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설교했다.

차병학 목사의 성찬집례 후 조경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무처리에서 새로운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노회장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부노회장 △서기 조경기 목사(아리조나 갈보리한인교회) △회록서기 양인수 목사(열방선교회) △회계에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단교회) △부회계 박대원 목사(은혜로운교회).

통합시찰장으로는 차병학 목사(생명의샘교회)를 임명하고 상비부조직을 마친 후 임사부에서 심의한 안전과 헌의부정원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결정했다.

(기사제공: KAPC LA노회)

△노회장: 최동진 목사(샌디에고 반석교회) △부노회장: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서기: 이항영 목사(남가주 기쁨의교회) △부서기: 고창훈 목사 △회록서기: 최경철 목사 △부회록서기: 정경민 목사 △회계: 경준수 장로, △부회계: 이영길 목사.

(기사제공: KAPC남가주노회)

LA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제32회 정기노회가 빅토빌예수마음교회에서 개최됐다.



KPCA 서노회 제92회 정기노회를 새한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노회에서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이 학교명칭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장신대 명칭 변경 요청 논의 KPCA 서노회 정기노회, 최경욱 전도사 목사안수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원종권 목사) 서노회(노회장 정세훈 목사)는 제 92회 정기노회를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노회는 KPCA 교단가입에 대한 노회규칙변경이 결의됐다. 노회규칙 제20조 1항 4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목사는 교단 교육을 면제한다'를 '교단교육을 받아야 회원이 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또한 미주장신대 학교명칭 변경 요청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은 학교명칭 변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관계단절 △미주장신대 선교적 학교로 거듭나면서 그 성향에 맞는 학교명칭 변경에 대한 시대적 요청 △타교단 출신 사역자들의 원활한 유입 등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이유로 "미주장신대를 신학교(Seminary)의 이름이 아닌 일반대학교(University)로 변경하면 한다"라며 "학교명칭 변경 이슈는 지난 2-3년간 본교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KPCA의 22개

노회중 미주장신대가 속해있는 남가주의 4개 노회에서 학교명칭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학교명칭변경작업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며 "미주장신대는 디아스포라 신학교답게 여러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에서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만큼 이제는 한인신학교로 머물기보다는 국제신학교로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선교사와 로컬교회 목회자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영적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주장신대는 이미 자체 공모를 통해 새로운 학교명칭 후보군들을 확보했다.

정세훈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회계 황병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미주장신대 학생인 박지범 목사, 조수연 사모가 특송을 불렀다. 이어 정세훈 목사가 '경청! 들음의 능력'(삼하12: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지영환 목사(부노회장)가 성찬예식을 집례했으며 김광철 목사(전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는 최경욱 전도사(나성영락교회)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KAPC 남가주노회 가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KAPC LA노회 관계자들이 노회를 마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갯스비전교회는 권사임직 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갯스비전교회 권사임직감사예배 강명선, 전영미 권사 임직

갯스비전교회(임금빈 목사)는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10일 오전 11시 45분에 가졌다.

임금빈 목사 사회로 시작된 임직감사예배는 이광준 장로가 기도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파서픽대학교 교수)가 비전성가대 찬양에 이어 단상에 올라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니엘 뉴먼 목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은 우리를 향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 빠지지 하나님은 사랑을 끊어지지 못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며 "힘들 때, 좋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슬픔이 있을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며 "하나

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보자. 그 사랑을 알아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권사임직식은 임직자 소개 및 서약이 있었으며 권사안수기도, 악수례 및 선포, 권사임직패 수여로 이어졌다. 그리고 임금빈 목사가 축사 및 권면했고 강명선 권사가 대표로 답사했다.

강명선 권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직분임을 믿고 하늘 나라 열매 맺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다니엘 뉴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민주평통 LA주최 3.1절 100주년 청소년 음악제에서 참석자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3.1절 100주년...시물놀이로 시작 민주평통LA주최 청소년 음악제 성황

민주평통통일사무회의 LA협의회(회장 서영석) 주최 3.1절 100주년 청소년 음악제가 9일 오후 3시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음악제는 보첼리스트 소년소녀합창단(지휘 클로리아정안), 새한한국학교(지휘 이영주), 남가주새누리교회(지휘 오지선), 파바월드(지휘 정밀야), 화랑청소년재단(지휘 안성대), 나성한인교회 한국학교(지휘 강희경), 카마 어린이 합창단(지휘 김유선), 오페라 캘리포니아소년소녀 합창단(지휘 벤자민 양)이 출연해 독

립군가, 고향의 봄, 유관순 노래, 아름다운 세상, 우리는 코리아, 3.1절 노래, 홀로아리랑 등을 불렀다.

1부는 UC샌디에고 풍물팀의 시물놀이로 시작, 국민의례가 있었으며 서영석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지윤자 사모(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23호 전수자)와 김미자 원장(선화무용학원)이 특별 공연했으며 3.1절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음악제는 참가자들이 3.1절 노래를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장로교회에서 3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목양의 열정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며 행동하는 본을 보일 분으로 미주한인예수교(KAPC)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유경험자. 구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목회자 2인 추천서와 최근 설교 2편이며 접수마감은 5월 31일. 이메일이나 우편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및 접수: yesokpositive@gmail.com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부흥세미나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김평옥 선교사를 초청, '건강한공동체세우기' 부흥 세미나를 3월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진행한다. 본 세미나는 '팀빌딩- ALPS 4 CLIMB UP'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문의: (323)641-0691

'예수로 성경읽기' 북 콘서트
LA한인타운에서 전 생명찬교회를 섬기던 김동일 목사가 '예수로 성경읽기'를 발간하고 16일 오후 2시 올림피아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문의: (213)200-4624

제2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
제2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다. 매릴랜드 빌립보교회 만사인스티튜트가 주최하는 세미나 강사는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이며 세미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등록비는 100달러(교재, 식사제공).
▲문의: (714)932-3352 이흥록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후원회 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제 25회 후원회 밤을 16일(토)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갖는다.
▲문의: (213)382-1544

미주장신대 2019 봄신앙사경회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는 2019 봄신앙사경회를 19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갖는다. 강사는 장종택 목사.
▲문의: (562)926-1023

UMC 남가주 여성교회연합회 선교합창제
2019 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여성교회연합회 선교합창제가 17일(주일) 오후 4시 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323)422-1711

자녀양육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제32차 자녀양육세미나를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십대자녀의 이해'라는 주제로 본 교회 128호에서 갖는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변명태 교수, 박재민 목사, 스펜서 김 목사.
▲문의: (949)285-4865



남상국 목사의 저서 '낯놓고 '기'자 몰라도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출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상국 목사 저서 출판예배 "낯놓고 '기'자 몰라도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낯놓고 '기'자 몰라도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출판예배가 10일 오후 5시 열렸다. 유의상 목사(가스펠영락교회) 사회로 시작된 출판예배는 이태섭 집사(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 이사장)가 기도, 채동선 전도사(마가교회 담임)가 요한계시록 1:2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채동선 전도사는 "계시록은 하나님나라 진리가 존재하는데 눈으로 봐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 곧 실상 안에 존재한다"며 "믿음은 실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계시록은 많은 실상이 묻어있고 하나하나 발굴하는 것이며 청결한 자에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채 전도사는 "남상국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책은 보급형 성경해석서로 생각된다"며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가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은혜가 많이 펼쳐나갈 축원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후 목사(교협증경회장)이 축도했다.

이병만 회장 사회로 2부 출판회가 열린 출판회는 임택순 장로(하나사랑재단)가 책 소개를 했으며 남상국 목사가 요한계시록과 아가서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된 도표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남문기 회장(뉴스타부동산)이 남상국 목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대 장로(OC한인회 회장)와 김태수 장로(OC장로회 회장)가 축사를,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과 박영선 의원(부여나팍)이 격려사를 전했다며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권면했다.

(박준호 기자)

성도·목회자 “공교회 지향해야” 공감

국민일보·목회자포럼 공동 전국 성도·목회자 대상 설문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 대부분이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5일 조사됐다. 응답자 중 절반은 한국교회가 공교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교회가 연합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꼽았다.

공교회란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인식해 자신이 속한 교회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교회 전체의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한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인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새번역)에 등장한다.

국민일보와 국민일보목회자포럼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도 800명과 담임목사 및 부목사 2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성도의 93.6%, 목회자의 100%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공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것은 처음이다.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향하는 한국교회가 나아가 지향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국교회가 공교회적 역할에 따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성도 52.2%, 목회자 43.6%가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교회의 정의는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을 묻는 문항에 포함돼 있었지만 공교회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는 성도 5명 중 1명(19.4%) 정도만 '잘 안다'고 답했다. 한국교회의 지향점으로서 공교회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응답자들은 대형교회에 공교회 역할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대형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문항에 성도들은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36.8%) '미자립교회 지원, 교회 양극화 해소'(20.8%) '목회자 재교육'(12.8%) '소속 교인들의 공교회 의식 교육'(12.7%)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계몽 프로그램 운영'(8.7%) '특수

목회·기독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합사역'(5.0%) '통일 준비'(0.6%) 순으로 답했다.

반면 목회자들은 '미자립교회 지원, 교회 양극화 해소'(29.6%)를 대형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 사역으로 꼽았다. 이는 한국교회 절반가량이 출석 교인 50명 이하여서 이들 교회 목회자들의 의견이 조사결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교회가 연합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공적 역할'이라고 답한 이들(성도 47.1%, 목회자 52.6%)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회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묻는 문항에는 성도 36.3%, 목회자 47.4%가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성도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목회자는 교단별 교회 수(2017년 기준) 및 교인별 가중치를 부여해 편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46% 포인트다.

신천지, 청와대에 '민원편지 폭탄'

이만희 작성 '평화선언문' 청와대 지지 얻어내려 추진

시한부종말론을 퍼는 사이비종교집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이 청와대에 수만 통의 '편지 폭탄'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신천지는 이를 위해 '손편지 작성 매뉴얼'을 신도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의 순방 때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일보가 11일 신천지 전용 스마트폰 앱인 'S라인'에서 확보한 공지사항에 따르면, 신천지 모 지파는 지난 5일 '포스터 작성'이라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전송했다. 메시지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보낼 손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지난 6일과 10일까지 편지 작성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천지 신도 전용 어플인 'S라인'에 지난 5일 청와대에 보낼 손편지를 작성하라는 공지가 떠 있다. 편지에 담을 필수 사항 4가지(하단 붉은 점선)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수록돼 있다. 독자 제공

신천지는 손편지가 지구촌 전쟁종식평화선언문(DPCW)에 대한 문 대통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DPCW는 2014년 교주 이만희(88)씨가 사이비 종말론

집단으로서 실체를 감추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선언문이다. 이씨는 "DPCW에만 동의하면 세계의 모든 갈등이 종식된다"고 주장한다. 신천지의 위장 평화단체인 새하늘문화평화광복(HWPL)과 국제청년평화그룹(IYPG), 세계여성평화그룹(WPG)이 이 선언문 지지운동을 펴고 있다.

신천지는 손편지에 문 대통령이 DPCW를 지지하지 않으면 세계평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편지 내용 필수 4가지 사항'에는 "만약 지지하지 않으시면 후대에 전쟁을 원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천지는 S라인에 20여분 길이의 음성파일도 게재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만든 음성파일에는 IPYG 관계자가 DPCW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는 음성파일에서 "무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군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DPCW의 주장에 176개국에서 70여만명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욕에 사는 신도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유엔 대사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IPYG는 위장

평화행사인 '만국회의'에 참여하면서도 '신천지와 관련 없는 단체'라고 밝혀왔다.

신천지는 이렇게 작성한 손편지를 14일 이후 청와대 등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한 명당 한 통씩 계산해도 수만여 통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천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청와대에만 6만~8만통을 보내려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천지의 '편지 폭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가평에 포교를 목적으로 한 '평화 박물관'을 건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 2만여통을 가평군청에 보내 업무를 마비시켰다. 교주 이씨는 직접 군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하려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채 돌아갔다.

위장 평화행사를 공인받으려는 신천지의 시도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 당시에는 말레이시아에 파견한 신도를 싱가포르로 보내 손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당시 신도 김보씨가 전달한 상자 커버 안에는 HWPL 소속의 명함과 함께 신천지 위장 평화단체 IPYG에 대한 소개와 DPCW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신천지는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 및 주영환 경호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내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위험한 행보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천지 전문 유튜브인 윤재덕 전도사는 "해외 NGO나 국제기구들은 신천지의 위협성을 모를 수 있다"면서 "2014년 자체 조사를 통해 DPCW 제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독일 문화외교연구소(ICD)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변승우씨 이단해제

6일 이대위서 결정...11일 기자회견 열고 해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사랑하는교회 변승우씨에 대해 이단해제 결정을 내렸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

회(위원장 유동근 목사)는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동섭 목사가 제출한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교회

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받고 이단해제 결정을 했다.

보고서에는 "변씨가 본질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에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7일 "조사해보니 변씨가 주장했다고 하는 구원론 신사도운동 직통계시 등에서 상당한 오해

가 있었다"면서 "한국교회 일부가 제기한 이단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단성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대표회장은 "변씨와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며 "향후 한기총 안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진짜 이단에 대해서도 재심할 계획이다. 모든 의혹에 대해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구약 (5)



김덕수 목사

생성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금 요단동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주시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획득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입니다.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광야 1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나안 7족속들을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참 신도 아니라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덮고 있던 죄악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시간에 레위기 18장에서 당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은 그 온 땅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패역과 음란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밀고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이며 구원이었습니다. 마치 라합처럼 말입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지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인 12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법망하고 있던 요단강을 범계를 뚫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에 넣었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후에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지시를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장정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남성의 포경수술입니다. 남성들이 그 수술을 받으면 며칠을 째짤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공로로 세우신다는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사사기로 흘러갑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차지 함으로 외형적인 국가의 모양새가 딱 갖추어졌습니다. 국민도 있고, 통치원리로서 헌법과 같은 율법도 있고, 살아갈 땅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온 열방에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복을 세상에 보여 내

다고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한 줄로 요약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 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동원하여 저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

미기의 신상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건인데요. 한 레위 청년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전속 제사장이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버리고, 한 개인의 집안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또한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또 다른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집을 나간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서 그 첩은 윤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열 두 토막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통로인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사사기는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국민을 만드시고, 법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온 열방에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공급하시죠? 다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dsukim@gmail.com

여호수아서 1-12장 가나안 땅 차지, 13-24장 땅 분배 각자 옳은 대로 행한 사사기, 사명 감당 못한 레위인 고발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될 가나안의 중심부부터 공략하며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은 메롬 물가 전투를 통해서 획득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획득했으니까, 지파별로 분배해줘야겠지요? 획득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유연과도 같은 고별설교까지가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의 전쟁으로 땅을 얻은 상태였구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얻은 땅은 북쪽부터 아셀, 납달리, 스블론, 잇사갈, 므낫세 절반,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 살면 되었습니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는 전쟁사사도 있고, 사무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사도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라는 사사들도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그 나라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즉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

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사사기는 그 이유를 한 지파에게서 찾습니다.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손에 들려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만, 레위인들은 고발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은 '

교도소 선교칼럼 (56)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ABC 사역 설립자(ABC Ministries)(상)

45세의 조지 메들리는 많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회심 후에 한 일은 실로 놀라웠다. 그와 그의 부인 아이린은 메탈 무버(Metal Movers Inc.)라는 폐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2년 전에 에이씨(ABC Ministries) 비영리단체사역을 시작했다.

식품과 의류를 모아서 나누어주는 일을 지원하며 매주 토요일에 냄비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무료로 주었다. 매달 약 천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의 사업은 직원 45명으로 연간 6백만불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그는 회사 내에서 매주 22명이 참석하는 성경공부를 인도하였고, 10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를 세웠다.

조지의 장래 비전은 고아원을 설립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의 간증은 마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씨를 심는 것이었다.

내가 조지를 만난 것은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가 아닌 우연한 기회였다. 조지의 처이모가 회사에 왔다가 내가 쓴 "치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휴게실에서 발견하고 읽은 후 은혜와 감명을 받았다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오면서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조지는 그 때부터 변화 프로젝트 후원자가 되었고 음식을 나눠줄 때 내가 쓴 책들을 함께 전해주며 문서선교를 확장시키고 있다. 조지와 아이린의 간증도 "최고의 성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에 실렸고 그 후 조지는 많은 재소자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격려의 편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선교계획서"-조지 메들리 목사

나는 흑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자랐다. 여섯 살이 되던 해 재소 목사의 권유로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트럭을 운전하는 아버지는 술과 마약을 하며 늘 어머니와 싸우고 우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나는 12살 때 차를 훔쳐서 체포되었고 8학년 때는 아버지의 마약을 훔쳐서 친구와 같이 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들켰는데 아버지는 마약 판매의 절반을 요구했다. 나는 그 요구에 응하며 마리화나와 메탐페타민, 코카인 그리고 헤로인을 시작했다. 얼마 후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을 하셨지만 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거리 생활을 시작했다.

노숙하거나 빨래방과 승합차가 나의 잠자리였

다. 가끔 배가 고플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가곤 했다. 때론 건설현장에서 잡역부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건물이 대충 지어지면 마무리 되지 않은 실내에서 잘 수가 있었다. 그러다 29살 때에 25세 아이린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내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뉴멕시코 주에서 30년형을 피해 콜로라도주로 도망 온 나는 종신형을 받을 상황이었다. 보석금으로 풀려나온 후 도망 다니다 결국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잡히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무죄로 풀려나와 자유인이 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6개월을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다시 6개월을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내가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삶을 회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 하루 동안 나와 같았던 12-13명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들은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두 잘못 할 수 있을까?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이 싫었다.

매칠 후 자원봉사자가 감방에 들어와서 물었다.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 혼자 교회로 향했다. 접견실에는 나와 목사님뿐이었다.

"당신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해게 만들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들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궁급해졌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TV하면 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주님은 "성경공부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감방의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에게 함께 성경공부를 하자고 요청하자 처음에는 5-6명이 참석하던 작은 모임이 20명까지 참여하는 제법 큰 모임이 되었다.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내게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서 행복해 하는 거요? 정말 기쁨이 넘쳐 보이는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네, 저는 성령님 때문에 기쁩니다."

(1723호에 계속)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케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장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1월 15일 나이로비에 있는 "두시"이라는 호텔에 알 사팜이라는 소말리아 테러 그룹에서 테러를 일으켜 2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외국인들이 목적이 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백화점, 호텔, 교회 등)을 피하고 계속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한 1월 26일에는 가리사 타운에서 알 사팜 대원들이 순찰을 돌던 경찰차를 폭탄으로 공격했습니다.

마싱가는 요즘 많이 덥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목사님은 요즘처럼 뜨거운 날씨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위로 지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를 마무리하고 벽을 쌓으려고 준비하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미쟁이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미쟁이를 구했으면 합니다.

선교대학
하나님의 때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후에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미종족을 위한 선교로 방침이 바뀌었고, 현지교단과 함께 미종족 선교를 하려고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AIC 교단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 조금씩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2주전에는 현지 교단이 나이로비에서 케냐 전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선교 세미나를 2일간 해서 목사들에게 선

마싱가 신학교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2번째 카이로스 선교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3학년, 그리고 교장, 전 부 35명이 5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많은 목사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며, 야타 지역에 성령과 선교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신학교는 마싱가 노회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야타 대회(약 400개의 교회, 8개의 노회)에 속하여 대회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 2월 26일에는 12명의 새로운 이사들이 신학교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새로운 이사장과 회계를 선출하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는 이번 학기에 29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케냐 학교의 커리큘럼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교과서들을 다시 구입하지만, 전국의 학교들이 책을 다시 사야 하기에 많이 없어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면 너도 나도 손을 내밀며 한번 잡아 달라고 하고 자기들의 작은 의지를 주면서 앉으라 합니다. 같이 장난도 많이 합니다. 학교의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해서 기초공사



교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야타 대회에서 허락이 나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던 선교대학이 2월 1일 마싱가 신학교의 교장, 부교장과 함께 야타 대회장(Yatta Area Church Council의 비숍)을 만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이 되었고, 대회 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야타 대회 안에 선교부를 조직했고, 2월 22일에는 야타 대회의 목사님들 1000명 정도 모여 세미나 하는 자리에서 선교 대학을 소개하였습니다.

2년 과정으로 계절학기(4월, 8월 그리고 12월)로 합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4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선교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고종족 미종족 지역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학이나 이슬람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영어로 강의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이매경 선교사
isaiah.lee@aimint.org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2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렘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년회: 오후 1: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특·별·기·고

미 연합감리교단의 2019년 특별총회에 대한 결과와 반응

동성에 논쟁에 일단락, 전통주의 신학에 무게 실려
복음주의적 교회는 더욱 목회에 정진할 수 있게 돼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이스교회

미연합감리교회는 전세계(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4만4천 개의 교회와 1200만명의 교인들이 소속돼 있다. 금번 201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특별총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 정체성의 문제를 장정법 개정이란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각 연회를 대표하여 864명이 특별총회의 총대로 참가하였고 그동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았던, 하나의 교회 플랜(One Church Plan)과 연대적 교회플랜(Connectional Conference Plan), 그리고 전통적주의인 플랜

(Traditional Plan)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투표에 임한 결과 전통주의적인 플랜이 438표, 하나의 교회플랜이 384표로 전통주의적인 플랜이 승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의미는 지난 40여년 동안 내 갈등을 빚었던 동성에 논쟁에 일단락을 지었다는 점과 동성에 관련 전통주의 신학에 무게가 실렸으며, 현행 장정을 유지하게 됨으로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더욱 목회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결과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크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반응으로 갈려졌다.

먼저 보수기독교계는 금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계속 진리수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진보적 성향교회는 슬프고 비통한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투표는 끝났지만,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소수의 목소리지만 탈퇴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한인교회의 입장은 금번 전통적인 플랜의 결정이야말로 바

른 결정이었다고 소리를 모았으며,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동성애자들에 대하여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애를 나누기를 바라며, 그들의 인격이나 인권보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금번 총회과정을 지켜보았던 미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한인교회의 의견을 집결시킬 수 있고, 교단 내에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한인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기관이 있어야 함을 공감하고,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산하, 한인교회연합회를 창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3월 11일(월) 뉴저지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교회연합회(준)가 모임을 갖고 회장을 선출하였다(회장에는 남부플로리다교회 이철구 목사가 선출됐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하여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는 금번에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말하는 권위를 지켜가며, 동성에 관련 현 장정의 규정을 잘 유지하여 무엇보다 선교의 문을 계속 잘 열어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아픔도 나누면 작아진다(상)

목회, 사람을 향하는 사역

우리는 교회를 성별된 공동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론이지 현장을 들여다보면 세속집단보다 저질스러울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빚어내선 안 될 추태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포장된 크리스천은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라는 글이 떠오른다.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신앙과 삶의 괴리를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군의 거처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의 집합체도 아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사함 받고 고침 받고 거듭나는 종합병원이다. 상처 주고 상처 받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씨름하다가 해법을 찾는 명 상담소, 거기가 교회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불완전한 입자들이 모여 산고 끝에 명품을 만들어내는 곳,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패배자들이 소망의 밭줄을 잡고 재기에 성공하는 신령한 사다다리, 그곳에 교회의 존재가 치가 있다.

천사교회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하다. 가난한 교회는 어느 교회는 좋고, 어느 교회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지상교회는 크든 작든 약점과 한계를 가진다. 정통을 내세우고 성령운동을 앞세우는 교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게 없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개체가 불완전한 입자들이기 때문에 명품 생산이 어렵다. 사람들을 새로 뽑고 새 건물을 세워도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도 다름 없는 졸품이 양산된다.

목회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고 필요하다.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목회는 사람을 알고 다루는 사역이다.

김난도 교수가 쓴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다. 문제는 1천번을 흔들고 가르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명혁 목사는 “선교란 함께 놀아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선교의 축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놀아주는 것이 선교라는 데 동의한다.

목회도 예외가 아니다. 조직을 강화하고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이벤트화 하는 것은 목회의 방법이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사람이다.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목회라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대학생 1,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응답 학생 중 28.9%는 가장 마음에 상처 되는 말로 “너는 왜 그 모양(꼴)이니?”를 꼽았고 “000처럼 공부 좀 잘해라”가 24%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는 반응이 40.5%였다. 문제는 상처받는 현상이 가정이라는 점과 상처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교회 때문에 화나고 숨이 가빠진다면 육체 건강은 물론 영혼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는 아프다. 교회도 아프고 사람들도 아프다. 목회자도 예외 없이 아프고 교인도 아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증가수치를 볼 수 있다. 2006년 302,080명, 2007년 330,451명, 2009년 342,261명, 2011년 535,000명이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한다.

교회는 이 일 저 일로 여기저기서 화난 사람들이 모여 화풀이 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 화를 풀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 중심에 목사가 서야 한다.

iamcspark@hanmail.net

MIRI 캘리포니아센터 오픈

미드웨스트대학교, 3월 4일 기념식

미드웨스트대학교 (총장 제임스 송 박사) 부설 MIRI(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캘리포니아센터 오픈 세레모니가 3월 4일 오전 11시 캘리포니아 코로나(Corona)에서 개최됐다. 캘리포니아센터는 코로나에 본부를 둔 FMKLabs 회사(회장, 김민성) 연구실과 공동으로 국제 건강보조식품/자연치유/피부건강관리연구소와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유급 인턴십, 전문분야의 연구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로 개교 33주년을 맞은 미드웨스트대학교는 1986년 세계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항공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음악대학, 상담대학, 신학대학, 리더십대학 등에서 학사, 석사, 박사(Ph.D) 학위프로그램과 영어학교, 미드웨스트국제연구소(MIRI)를 통해 공무원1-2년 미국연구프로그램, 교환교수, 교환연구원,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 대학교는 미연방정부 교육부 USDE와 미연방정부 학력인증기관

CHEA로부터 인준 받은 종합대학교이며 미국국무성으로부터 DS-2019(J-1비자) 발행허가를 받은 대학교로서 본교는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웬츠빌(Wentzville)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 본교를 두고 있다.

미조리 주정부와 시정의 협력아래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MIRI)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 가치 분야의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고 있고,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을 통해 세계 각 나라의 정, 경 지도자, 교수, 교장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다.

미드웨스트 항공대학은 FAA 국제 조종사면장과정,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을 배출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 ISASI의 회원대학교로서 안전, 보안 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소방청, 미국재난관리청 FIMA, 산림청, 119, 해양경찰 등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하는 SMS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증과 자격증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and a grid of 24 church listings.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listed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예배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중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영어로 보는 성경 (1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Ruth 1:16,17

16)But Ruth replied: Don't plead with me to abandon you or to return and not follow you. For wherever you go, I will go, and wherever you live, I will live;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17)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punish me, and do so severely, if anything but death separates you and me. (CSB 2017)

WORD & IDIOM

* replied: reply(대답하다. 대응하다)의 과거형 * plead with ~: 에게 간곡히 청하다, 부탁하다 * abandon: (특별히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버리다 * wherever S + V: S가 V하는 곳이 어디이건 * where you die: 당신이 죽는 곳 * punish: 처벌하다 * severely: 엄하게, 혹독하게 * if anything but death: 만약 죽음 외에 어떤 것 * separate: 나뉘다, 나누다.

GRAMMAR

16) But Ruth replied: Don't plead with me to abandon you or to return and not follow you. 그러자 룯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청하지 말라 당신을 버리는 것 or to return and not follow you. 또는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당신을 따르지 않는 것 => 그러자 룯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당신을 버리거나 돌아가서 당신을 따르지 말 것을 강요하지 말라.

For wherever you go, I will go, and wherever you live, I will live;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이건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이건 나는 살 것이다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이건 나는 그곳에 갈 것이며,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이건 나는 거기서 살 것이고; 또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 Don't plead with me to abandon you or to return and not follow you. 이 문장은 5형식(S+V+O+OC) 문장에서 Don't 와 plead 사이에 주어(you)가 생략된 부정명령문이며, 목적격(me) 보어(OC)로 to+V(to 부정사)가 쓰였다. * to 부정사의 부정은 to+V 앞에 not를 넣는다. 따라서 not follow you는 not to follow가 되어야 하지만 앞의 to return과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not 와 follow 사이에 to가 생략되었다.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당신이 죽는 곳(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나는 묻힐 것이다 =>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는 죽을 것이며, 그곳에 나는 묻힐 것이다. May the Lord punish me, and do so severely. 주께서 나를 벌 하소서 그리고 혹독하게 그렇게 하소서 if anything but death separates you and me. 만약 죽음 외에 다른 것이 당신과 나를 나누다 => 만약 죽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당신과 내가 나뉘는다면, 주께서 나를 벌하시되 혹독하게 벌 하시기를 빈다.

* I will be buried: be + pp의 수동태 문장이다. 내가 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내가 묻히는 것이다. * May the Lord punish me는 주께서 자신에게 벌주시기를 소원하는 직설법 기원문이다. 이를 서술문으로 바꾸면 I pray that the Lord may punish me가 된다. 여순을 비교해 보라.

STUDY & THOUGH

■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룯의 결심이 대단하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녀의 고백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저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혹한 타락의 시대에 한 가련한 이방여인을 들어 쓰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하리라. ■ No matter how difficult her situation, Ruth wants to be with Naomi.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선행을 가르치라(딤후2:15)찬509장

사도는 목회자 디도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첫째, 권면하라고 합니다. 진리를 설명함으로 그것을 표준삼아 따르라고 권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담하고 우리는 사랑의 강권함으로서 참된 선행을 이루게 됩니다. 둘째, 책망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책망이 어두움을 빛으로 나

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순종만큼 복된 선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순종은 기적보다 더 귀합니다. (루터)목회자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며 권면과 책망과 순종함으로서 선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화 권덕을 가르치라(딤후3:1-2)찬421장

앞서 말한 선행처럼 그리스도인의 덕은 어떻게 세워질까? 사도는 본문에서 소극적인 방면과 적극적인 방면을 가르칩니다. 첫째, 비방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2). 교회생활에 일어나는 이런 악은 유익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열심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려는 열심이 이 악을 이기게 합니다. 둘째, 관용해야 합니다(2). 남을 유익하게 하려면

섭기는 자의 용납함과 품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채워진 세상은 성령의 품으시는 사랑으로만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셋째, 온유함으로 행해야 합니다(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덕이 세워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수 구원의 연장인 덕행(딤후3:3-5)찬422장

구원에서 덕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사도는 구원의 전후를 대조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3절에 7중생활의 특징을 지적합니다. 1)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영적무신론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이고 2)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였고 3)마귀의 거짓에 속은 자였고 4)정욕과 향락에 중

노릇한 자였고 5)악독과 투기에 힘쓰는 자였고 6)가증스러운 자요 7)서로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진노 아래 있는 죄인으로서 악의 열매를 나타냄으로서 혼란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후에 중생과 성령의 갱신을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5절).

목 참 구원의 과정(딤후3:6-8)찬495장

사도는 참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 성령을 부어주시심으로 시작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개별적인 부름을 효과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6). 계속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성숙하게 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드러내게 하십니다. 둘째, 칭의를 얻게 하

십니다(7).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의를 갖게 하십니다. 행함으로 얻는 인간적 칭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신적 칭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셋째,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기구원에서 타인구원을 하려면 그 자신이 의의 흥패로 무장해야 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 경계할 일들(딤후3:9-11)찬213장

세상에서의 교회는 언제나 거짓교훈의 공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며 경계해야합니까? 첫째, 피할 것은 어리석은 변론과 죽보이자기와 분쟁과 울범에 대한 다름입니다(9절).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통해 슬며시 찾아오는 거짓교훈은 언제나 사탄의 수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중심한 교훈을 지키는 일에 초

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이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10). 왜냐하면 부패해 스스로 정죄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11). 우상 숭배를 멀리하거나(요한) 이단교훈을 멀리하게 하는 것(바울)은 같은 맥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교훈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토 사도의 작정(딤후3:12-15)찬214장

첫째, 진리를 가르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12). 사도는 디도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아테마와 두기고 등을 보내며 겨울에 같이 지내기를 위해 급히 초청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진리를 전하려는 그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둘째, 말씀 중심한 삶을 구합니다(13). 그리고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 진리를 나눠 부족함이 없게 하려했습니다. 이것

은 그의 사역이 철저한 말씀중심한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구했습니다(14-15). 사도의 목표는 개인의 생활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력이 아닌 믿음으로 맺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인 의, 인, 신의 건강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도의 거룩한 결심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서 창세기에서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의 **저통범안 결정을 환영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는 동성결혼과 동성애 목회자를 금하는 교회법을 확정하였습니다
 한인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른 이 결정을 존중하고 계속 지켜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수자들이 가진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열린 마음으로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교회 이름 / 지역별	교회 주소	담임목사	교회 전화번호	교회홈페이지 / e-mail
로스엔젤레스 동부지역 로렌하이츠 / 브레아 / 포모나 / 히스페리아				
남가주 주님의 교회	1747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CA 91748	김낙인	626-965-9191	joonimchurch.com
언약교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구진모	909-622-8815	covenantumchurch.com
주사랑 연합감리교회	480 N. State College Blvd., Brea, CA 92821	이정환	626-575-9191	joosarangumc.org
히스페리아 한인연합감리교회	18623 Main St., Hesperia, CA 92340-1218	민병렬	718-757-1399	byungmin011@gmail.com
로스엔젤레스 서부지역 가디나 / 라팔마 / 로스엔젤레스 / 칼슨 / 토렌스 / 풀러튼				
나성금란 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이석부	310-973-5106	krumc.org
LA 복음 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김호용	323-641-0691	lagumc.org
LA 중앙 연합감리교회	420 E. 20th Street, LA, CA 90011	조승홍	213-290-7665	ndcho1004@yahoo.com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8111 Walker Street, La Palma, CA 90623	김도민	714-226-0300	lapalmakoreanchurch.com
LA 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이창민	310-645-3699	lakumc.org
로스펠리즈 연합감리교회	1800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7	신병욱	323-382-0691	lfumc.com
시온 연합감리교회	231 E. Lomita Blvd., Carson, CA 90745	오경환	310-834-5504	zionkumc.net
월서 연합감리교회	711 S. Plymouth Blvd., Los Angeles, CA 90005	신영각	323-931-9133	wilshireumc.org
은혜의 강 연합감리교회	2351 W. Orange 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홍종걸	714-870-9991	graceriver.com
토렌스 한인연합감리교회	3646 Newton St., Torrance, CA 90505	강현중	213-235-7659	torrancekumc.org
오렌지카운티 / 샌디에고 지역 가든그로브 / 라구나우즈 / 어바인 / 샌디에고				
가든그로브 연합감리교회	12741 Main Street, Garden Grove, CA 92840	박용삼	949-812-1233	ggkoreanumc.com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림학춘	949-380-7777	lagunaumc.org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6701 Convoy Ct., San Diego, CA 92111	이성현	858-279-9191	kumcsd.org
어바인 드림교회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원홍연	949-345-5791	irvinedreamumc.com
로스엔젤레스 북부지역 글렌데일 / 패사디나 / 몬트로스 / 밴나이스 / 우드랜드힐스 / 그라나다힐스 / 옥스나드 / 카마리오 / 산타마리아				
드림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정영희	626-793-0880	dreamumc.com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6260 Tyrone Ave., Van Nuys, CA 91401	안정섭	818-785-3256	vannuysumc.com
밸리 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류재덕	818-366-0089	vkumc.com
벤엘 한인연합감리교회	311 S. Broadway, Santa Maria, CA 93454	남기성	805-922-1004	smbethelkumc.org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272 Corsicana Dr., Oxnard, CA 93036	남재현	805-485-0100	oxnardkumc.org
우드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	5650 Shoup Ave., Woodland Hills, CA 91367	이상호	818-346-1617	lovingtreechurch.blogspot.com
은혜 연합감리교회	211 S. Pacific Ave., Glendale, CA 91204	한진호	818-241-9352	lagracekumc.org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5443 Ash Street, Los Angeles, CA 90042	함무근	323-257-7713	mooham45@gmail.com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	291 Anacapa Drive, Camarillo, CA 93010	이상영	805-389-3161	ckumc.net
태평양 연합감리교회	699 Monterey Rd., South Pasadena, CA 91030	이도원	213-248-9297	pacificumc.com
크레센타밸리 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김용근	323-774-2992	cvkumc.org



가주태평양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장 이정숙 권사
 가주태평양한인연합감리교회 총남선교회 총회장 송준 집사
 하와이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